

거듭남



PUBLIFYE



Updated 2026-08-21

Contents

Contents	2
1 머리말	5
2 서론	6
3 거듭남 — 그 기둥	7
3.1 물가의 결혼식	7
4 년 하우켈란드 병원	13
5 어린 시절 (1980-82)	15
6 년 의붓아버지	17
7 년 신문 배달원	18
8 광야와 같이 (1990)	19
9 고등학교 시절 (1991-94)	21
10 년 포콜 농장	23
11 년 대안 네트워크	25
12 년 파게를리 캠프	26
13 년 어머니의 죽음	27
14 년 폴리테크닉 대학	29
15 HIA Grimstad (2000-02)	30
16 NTNU Trondheim (2003-04)	31
17 Oslo (2005-06)	32
18 구원이 문을 두드리다 (2007-08)	33
19 Frekhaug (2009)	42
20 년 기독교 교제	43

CONTENTS	3
21 년의 선택과 형제들	48
22 하나님의 보좌 (2012)	56
23 축복과 배신 (2012)	59
24 년 1980년의 상처	61
25 Reinhard Bonnke (2012)	62
26 년 미국의 성경 학교	69
27 Charis Bible College (2014)	75
28 노르웨이로의 귀환 (2015)	79
29 년 아시아	88
30 년 Levanger 기도 센터	92
31 The Separation (2017)	93
32 년 새로운 프로젝트 직무	101
33 년 HUNT 연구 센터	108
34 연구 센터 (2020)	110
35 Publifye AS (2021)	112
36 앞으로의 길 (2022)	115
37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18
38 죽음도 없고 영도 없는가?	123
39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125
39.1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125
39.2 모든 의를 이루심	125
39.3 더 깊은 세례	126
40 Adult Baptism	127
40.1 세례는 결혼식이다	127
41 토라의 워터마크	141
42 암호화된 세례 (The Encoded Baptism)	148

Chapter 1

머리말

이것은 Jorn Andre Halseth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은 1975년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50년에 걸친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저자의 영적 거듭남과 개인적인 투쟁, 그리고 표적과 기사, 성령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에 개입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가족 간의 시련과 의미에 대한 탐구로 점철된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던 2008년의 결정적인 영적 거듭남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역이 묘사됩니다.

Halseth는 이혼, 직업적 불확실성, 영적 회의와 같은 삶의 힘겨운 시기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과 예언적 메시지, 그리고 의심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성장한 믿음이라는 배경 위에서 제시됩니다. 또한 이 책은 성경과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룹니다. 이야기는 성경적 진리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로 엮어내며, 영적인 성숙과 인간적인 성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저작은 단순한 인생 이야기 그 이상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의 간증입니다. Halseth는 승리와 시련 모두를 솔직하게 나눴으로써, 독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구하도록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기도하도록 권면받습니다.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옛 삶과 새 삶 사이의 긴장이 항상 고통이 없지않은 영적 진통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22-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 요한복음 20:29

Chapter 2

서론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 민수기 6:24-26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며(디모데전서 2:4), 당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곧 당신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한복음 1:3). 이 글을 쓰는 저는 2008년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이자 주인으로 영접하며 거듭났습니다. 이 회고록은 저의 삶의 이전과 이후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을 위해 제 삶을 기꺼이 드러내기로 결단하며 쓴 간증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한 장의 그림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세례는 바로 그 결혼식입니다. 믿음과 세례의 물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애와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십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바로 그 사실 위에서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인 — 거듭남 — 기둥 — 은 이 책이 기초하고 있는 가르침, 곧 미크베(침례), 하늘의 문턱, 그리고 모세오경의 글자 속에 하나님께서 엮어 놓으신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하늘 문 밖에 서 있던 한 노르웨이 사람이 구원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와 온전한 잠김을 통한 참된 미크베를 경험하며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요한복음 14:26)이신 성령님께서 다가올 시간 동안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한 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 야고보서 1:23-27

Chapter 3

거듭남 — 그 기둥

3.1 물가의 결혼식

이 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한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기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며, 세례는 바로 그 결혼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이라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을 그렇게 일컬었으며(요한복음 3:29),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마태복음 9:15). 성경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한 남편에게 약혼하였고(고린도후서 11:2), 그분과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으며(에베소서 5:31-32),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기를 기다리는 존재로 말입니다(요한계시록 19:7). 그리고 이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 바로 물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 3:27). 즉 신부의 예복을 입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며(로마서 6:4),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베드로전서 3:21)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 예식은 필요 없다 ”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두 낯선 사람이 서류에 서명한다고 해서 그것을 결혼이라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으면서도 세례의 물을 거부하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결혼식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신부 없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세례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애와 언약의 관계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기둥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 나는 성령님께 세례에 관한 신약성경의 명령(요한복음 3:5; 마가복음 16:16)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 영으로 여쭙었다. 그분은 한 단어로 대답하셨다. 단 한 단어였다. 세정(Ablusjon).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사전은 그것이 의식적인 정결례, 즉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거치는 씻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었으며 기쁨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레위기 8장). 성령께서는 제게 아무런 설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 단어를 주시고 그것을 품고 가

도록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숨결로 온전한 가르침의 씨앗을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2천 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 — 이 밤에 예수께 와서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2). 그는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묻기도 전에 그의 말하지 않은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요한복음 3:1-5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낯설고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이고 할라카적인 용어였습니다 — 이방인이 «미크베 מִקְוֶה^{H4723}», 즉 침례탕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개종을 완료할 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개종한 개종자는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 (Yevamot 22a). 그의 이전 삶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소급적으로 시내산에 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미크베는 단순히 그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인 그에게 **이방인이 통과해야만 하는 바로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문화적 자격은 **하늘의 문턱**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앞선 모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개종자의 물속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 장(요한복음 4:10-14)에서 그 물 자체가 바로 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mikva»(예레미야 17:13).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Mikva이시며, 랍비의 의식이 줄곧 가리키던 정결례의 목욕이십니다.

그날 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단어 — anōthen — 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곧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의미만을 알아듣고 모태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

한 자신이 이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에서 세 번 더 사용함으로써 어느 쪽이 무게를 지니는지 분명히 합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의 의미만이 성립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위에 계시고» (요한복음 3:31) — 바로 이 장의 후반부에서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요한복음 19:11). 그리고 십자가 곁의 군인들은 그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찢는 것이라» (요한복음 19:23). 같은 단어, 세 증인 — 그중 어느 하나도 다시라는 뜻일 수 없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끝을 맺는지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의 등장은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빌려 온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이며, 군인들이 찢으려 하지 않은 그 속옷은 위로부터 찢인 것으로, 술기가 없고 사람의 바느질이 한 땀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새 출생의 말씀은 십자가에 걸려 있고, 그 옷마저 이를 선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은 온전하게 짜여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13).

니고데모가 여전히 비틀거릴 때 —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한복음 3:9) —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마음에 새겨 알고 있던 그림으로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그림은 모든 구도자가 그다음에 던지는 질문에 답합니다. 출생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닿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요한복음 3:14-15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들은 뱀에게 올라가라는 말도, 그 치료를 얻어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수기 21:8-9). 위로부터의 출생도 같은 길로 옵니다. 하늘은 사람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셨으니, 죽어가는 사람이 해야 할 전부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그리고 살라.

이것이 이 책이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다. 나는 니고데모와 정확히 같은 처지는 아니었다 — 나는 바리새인도, 이스라엘의 선생도, 산헤드린 공회원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면에서 나는 그가 서 있던 곳에서 있었다. **천국 문밖에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자격 증명서를 손에 든 채로.** 나는 노르웨이의 문화적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 영적인 구도자였다. 나의 조상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어머니이신 할머니 Jenny만이 그들 중 유일한 신자였다. 나는 내가 천국을 진정으로 믿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만약 믿었다면, 나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종류의 천국이든 당연히 내 것이 되리라고 조용히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교육받은 사람이자 — 이학 석사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였으며 — **세상적인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그 지식이 영적인 종류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었다. 니고데모처럼, 나는 배워야 할 만큼이나 버려야 할 것도 많았다. 나는 성인이 되어 개종자의 물가로 나아가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했다. 당신이 읽게 될 이 회고록은 천국 문밖에서 그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화적, 지적 자격 증명서를 들고 서 있던 한 노르웨이인이 33년에 걸쳐 천천히 걸어온 여정이다 — 2008년에 구원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그 모든 세월 동안, 참된 미크베(침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끌리고 있던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십 년 전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단어 — ablution(씻음) — 는 전체 교리의 씨앗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위임식 때 행해진 제사장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16년에 내게 단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삼 천 년 전에 토라에 그에 대한 주석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
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 마태복음 6:22-23

예수님께서서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지, 즉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기로 선택하는지가 우리 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3천 4백 년 동안 토라의 히브리어 글자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워터마크를 품고 있었고, 그 암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페이지에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워터마크가 요구하는 그 척도로 글자를 향한 눈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Darash를 세우고 글자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것들이 무엇을 암호화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암호들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엇을 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두신 곳으로 등불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3천 년 전 그분의 영께서 토라에 새겨 넣으신 워터마크가 마침내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암호들은 이제 빛을 발합니다. 저를 위해, 이것을 읽는 당신을 위해, 뒤따를 세대들을 위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마침내 그 방향으로 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등불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이어지는 각 장을 통해 그러한 발견을 하나씩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이름인 니고데모(נִיקְדֵּמוֹס)는 토라에서 1,092글자의 등간격으로 나타나며, 정확히 민수기 7:17에서 시작됩니다. 그 구절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자 고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홍해의 물이 갈라지기 전 가장 먼저 바다로 들어갔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Nahson ben Amminadab)**의 예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이, 가장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던 사람의 구절을 통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7:17 그 자체, 즉 니고데모 암호가 고정된 바로 그 구절 안에서 물(מים), 아들(בן), 마음(לב)이 모두 2의 간격으로 나타나며 구절의 글자들 속에 짜여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 겹쳐서 영(רוח)은 \$-56의 간격으로, 새로운(חדש)은 \$-54의 간격으로, 태어난(ילד)은 57의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인 Yeshua(ישוע)는 \$-244의 간격으로 나타나며 그 글자들이 구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mikva(מקוה)는 아브라함(אברהם)과 함께 두 구절 앞서 나타나며 니고데모의 고정 지점과 겹쳐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담긴 거듭남 관련 어휘의 주제적 밀도는 **동일한 히브리어 알파벳을 무작위로 섞었을 때 나타나는 빈도의 21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섞은 10개의 대조용 토라 중 어느 것도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 나아가, 침례와 관련된 토라 전체에서 가장 가까운 두 단어의 쌍인 «믿음»(אמונה, emunah)과 «침례»(טבילה, tevilah)는 **신명기 21:23**에서 단 두 글자 차이로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13에서 인용한 그 구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 갈라디아서 3:13 / 신명기 21:23

믿음과 침례가 십자가 처형 구절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기 1,400년 전에 토라의 글자 속에 암호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게마트리아 (Gematria)가 이를 확증합니다. Mashiach(메시아, 358) 더하기 Tevilah(침례, 56)는 **414**가 되는데, 이는 바다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인 나손(נחשון)의 정확한 게마트리아 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견이 더 있습니다. 10년 전 성령께서 제게 주신 그 한 단어에 대한 인장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임명식 구절인 **레위기 8:3**으로 등불을 비추었을 때, 즉 2016년 성령께서 제게 아무런 설명 없이 언급하셨던 바로 그 세정의 구절에서 우리는 **거듭남의 가르침을 구성하는 11개의 단어 중 10개가 그 구절에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 mikva, 물, 영, 새로운, 침례, 예수, 정결, 씻음, 아브라함 — 이들 각각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씻김을 받는 구절과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tevilah(טבילה)는 토라 전체 304,805글자 중 단 17번만 등장하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ELS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제게 주신 단어. 그 단어가 가리키는 구절. 그 구절의 글자들 속에 짜여 있는 침례 어휘의 밀집된 군집.** 그분은 2016년에 제게 세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3천 년 전에 토라의 글자 속에 그 단어에 대한 주석을 새겨 넣으셨고, 그 단어가 가리키는 바로 그 구절로 그것을 봉인하셨습니다. 등불이 돌려졌고, 그 곳에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론이 서 있던 워터마크. 니고데모가 통과했던 워터마크. 바울이 선포했던 워터마크.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기록 속에 내려놓으신 워터마크.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친히 거듭나셨으니, 곧 무덤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부활하신 아들을 향하여 시편 2:7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행전 13:33). 그 헬라어 동사는 gennaō γεννάω^{G1080}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동사입니다. 아들은 마리아를 덮으셨던(누가복음 1:35)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베드로전서 3:18). 예수님은 prōtotokos ek tōn nekrōn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골로새서 1:18). 토라의 히브리어로는 pe'er עֵר^{H6363} re'em עֵמ^{H7358}, 곧 **태를 여는 자**입니다(출애굽기 13:2; 누가복음 2:23). 마리아의 태가 그분이 여신 첫 번째 문이었고, 무덤이라는 태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통과하셨고, 그분이 여신 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토라는 그 자체의 글자로 이를 확증합니다. **창세기 22:4**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아케다의 삼 일째 되는 날, qum(일어나다)이 \$-8\$ 간격으로 구절 안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tequmah(부활)가 \$-204\$ 간격으로 그 장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들의 삼 일째 부활은 십자가 사건 삼천 년 전, 이삭의 삼 일째 구원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어둠 속에서 찾아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던 그 사람은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수년 후 그는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감히 한 문장을 던졌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7:51) — 이는 그가 한때 밤에 찾아갔던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한 작지만 대가 치를 각오가 필요한 변호였다. 그리고 대낮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웠던 이들이 흠어졌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터라쯤» (요한복음 19:39)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다 — 이는 왕의 장례에 쓰이는 분량이었다 — 그는 오래전 그 밤에 자신에게 대답하셨던 바로 그 미크베(Miqveh)의 몸에 손을 얹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바로 그분께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3장의 씨앗은 십자가에서 꽃을 피웠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단순히 2008년에 구원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둥은 가르침이며, 책의 나머지는 뼈대 위에 붙은 살입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Mikva로 인도된 한 노르웨이인 니고데모의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이 페이지들을 넘기는 모든 독자에게 등불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Chapter 4

년 하우켈란드 병원

저는 1975년 Bergen의 Haukeland sykehus에서 4.2kg, 45cm의 체구에 빨간 머리를 가진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첫해에는 Danmarks plass에서 멀지 않은 Solheimsviken에서 살았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곳인 Fyllingsdalen의 Ørnahaugen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당시 Jørn André Nynes였으나, 의붓아버지가 가족이 되면서 Jørn André Nese Berntzen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05년에 제 첫 아내와 저는 Sogn의 Vik에 있는 Halseth 농장의 이름을 따서 성을 Halseth로 바꾸었습니다.

제 외할머니의 성함은 출생 증명서에 적힌 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Jenny Gjertine Johannesdatter Halseth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의 대부분을 Bergen 외곽의 Askøy에 있는 Ask에서 사셨으며, 곧 10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의붓아버지와 재혼하기 전까지 Gunvor Nese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그가 다녔던 모든 회사에서 헌신적인 직원이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아버지의 성함은 예전에 Bjørn Nynes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다양한 직업을 가졌으나, 여러 해 동안 기관사이자 선원이었습니다. 그의 장남인 저와 제 형제는 불행히도 성장 과정에서 제 아버지를 포함한 Nynes 가족과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많은 이들이 말하는 임사 체험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빛을 보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와 저 사이에서는 소중한 비밀로 간직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 너머의 세계가 실재한다는 조용한 깨달음처럼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제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제 안에 무언가를 심어주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9살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와 보낸 여름은 Askøy의 Ask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Irene 이모, 그리고 한 삼촌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양가 가족 중에서 제가 아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은 외할머니뿐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가족 중 누구도 저에게 참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전처와 그녀의 가족 또한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나 후에 제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리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면서 진리가 교회를 뜨겁게 달궜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저는 Ask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고 Fyllingsdalen의 Den Norske Kirke에서 견신례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입으로 예수님을 주와 스승으로 고백해야 하며, 자신의 **자유 의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고, 옛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양자로 입양되려면, 유아 세례처럼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 누구도 이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8년 33세의 나이에 Bergen 외곽 Knarvik에 있는 경건한 자유 교회인 ”Kristent Fellesskap Nordhordland” 에서 거듭났습니다.

Chapter 5

어린 시절 (1980-82)

저에게 두 명의 남자 형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Tom은 저보다 15개월 어리고, Lars Erik은 12살 아래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맺어진 이복형제입니다. Tom과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함께 겪으며 자랐습니다. 이사, Ørnahaugen의 아파트 단지, 신문 배달을 하던 시절, 그리고 어머니의 투병 생활까지 말이죠. Lars Erik은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가정에 나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오늘날 두 형제는 각각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저는 그들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내가 5살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다. 어머니는 자상한 분이셨고 처음 10년 동안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셨지만, 이혼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머니는 점차 부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져드셨고, 이것이 그녀의 인생 마지막 18년의 시작이 되었다. 나의 친아버지는 오랜 세월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는 결혼 생활이 끝나기 전과 후 모두에 걸쳐 어머니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아버지는 그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술에 취해 계셨기에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여러 어려운 경험을 했다. 요컨대, 이 격동의 시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고통스러운 씨앗을 심었고, 이는 수년 후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용서는 악한 것을 깨끗이 씻어내지만, 종종 우리는 무디거나, 꺼려하거나, 혹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내게는 그런 치유가 2012년에 일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아버지는 2021년, 71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로 선택하셨으며,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셨다. 또한 아버지는 2020년에 충을 맞았음에도 실제로 살아남으셨는데, 의사들은 천사가 보호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분께 세례를 주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분의 고집이 생명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80년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Bergen의 Ørnahaugen에서 기본적으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넓은 공용 공간이 있는 좋은 야외 지역이었다. 우리는 아파트(blokk)에 살았는데, 입구가 23개씩 있는 건물이 여러 동 있었다. 각 건물은 3층 높이였고, 여러 동의 건물이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거주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생활이 보호되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이 탐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숲도 있었다. 나는 주변에서 찾은 중고 자재들로 직접 몇 개의 간단한 오두막(hytter)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근처에 못이 박힌 널빤지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기뻐다. 일과는 못을 뽑고, 펴서, 오두막을 짓고, 시간이 지나면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새

로운 장소, 대개 나무 위쪽에 다시 지었다. 한 번은 지면에서 고작 1.5미터 높이의 두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 위에 아주 작은 평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들판 저편에서 일광욕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샌가 나는 자재들 사이에 파묻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나를 살피러 달려오셨다.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세월이 흐르며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다. 아마 가장 끔찍했던 일은 못을 뽑으려다 망치로 이마 한복판을 때렸던 날이나, 담장에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졌을 때일 것이다. 약 40년 전의 일임에도 그런 일들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아파트 밖에서 우리는 무리 지어 자전거를 타거나, 술래잡기(tikken)를 하거나, 고무줄놀이와 줄넘기 등 여럿이 하는 놀이를 하곤 했다. 이때는 모두가 컴퓨터나 태블릿을 갖기 전이라 아이들은 밖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어머니가 나와 남동생에게 다음 날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으시던 기억도 난다. 내게는 단연 토마토 수프가 최고였지만, 갈색 소스와 감자, 채소를 곁들인 어머니표 수제 미트볼(kjøttkaker)도 맛이 일품이었다. 어머니의 자매인 Sonja 이모는 베이킹에 특별한 솜씨가 있으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사각 쟁반에 굽는 초콜릿 케이크를 무척 좋아하셨고, 어머니가 그것을 만드실 때면 나는 항상 곁을 떠나지 않았다. 케이크가 완성되면 나는 주방을 들락날락하며 갓 구운 조각을 슬쩍 집어 먹곤 했는데, 처음에는 무척 뜨거웠음에도 정말 맛있었다. 내가 직접 그런 사각 쟁반 케이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어머니가 만드신 케이크의 맛은 똑똑히 기억한다. 그분의 케이크는 다크 초콜릿을 많이 넣지 않은 밝은 색 계열이었지만, 풍미가 뚜렷하고 폭신하며 아주 좋았다. 갓 구워냈을 때의 그 맛은 여느 갓 구운 빵처럼 정말 각별했다.

Chapter 6

년 의붓아버지

나의 새로운 의붓아버지가 우리 삶에 들어와 어머니와 결혼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하지는 않았다. «의붓아버지»가 생기면서 우리 가족은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이때부터 가끔 VHS 비디오를 빌려 보기 시작했고, 때로는 중국 음식점에 가기도 했다. 그들의 결혼 초기에는 가게 형편이 좋았으며, 첫 해외 여행은 스페인의 Mallorca로 다녀왔고 또 다른 때에는 Danmark에 가기도 했다. Mallorca에서 고카트를 탔던 일이 기억나는데, 코너를 급하게 돌 때면 타이어에서 거의 타는 듯한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정말이지 아주 좋아했지만, 내가 트랙에서 내려왔을 때 나의 의붓아버지는 완전히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두 가지 모두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었고, 나는 그 일들을 통해 성장했다. 우리는 수영을 아주 많이 했고, 그해 여름 내 등은 마치 구운 철판조처럼 보였으며 피부가 큰 조각으로 허물처럼 벗겨질 정도였다. 우리는 그때 단것을 너무 많이 먹기도 했는데, 치아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은 일이었다.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나중에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어머니에게는 끝의 시작이었다.

Chapter 7

년 신문 배달원

12살 때 친구와 함께 BA, BergensAvisen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구역은 Fyllingsdalen의 Ørnahaugen과 Hjalmar Brantingsvei였으며, 친구와 함께했습니다. 나중에는 Fyllingsdalen의 Barliaveien에서 ”Bergens Tidende”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점과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Bergen에서 가장 어린 신문 배달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꽤 즐거웠습니다.

1987년 가을, 우리 가족은 Ørnahaugen에서 Fyllingsdalen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Bjørgedalen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경제에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의 초입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로 움츠러들었고, 약물 복용과 과도하게 침대에만 누워 지내시는 부정적인 악순환이 시작되어 근육마저 약해졌습니다. 의사는 이 시기에 어머니께 너무 많은 약을 처방했고, 이 일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승승장구하며 이후 몇 년 동안 좋은 직장에 다녔지만, 어머니가 «떠나기» 시작하자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제 내면에는 마치 블랙홀이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저는 서서히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제 에너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퇴근 후 늦게 귀가하여 저녁 식사 준비를 거르고 우리에게 «그냥 아무거나 좀 챙겨 먹어라»고 말하는 습관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이미 식사를 했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 몸은 부분적으로 영양실조 상태였을 것이며, 영양에 대한 무지와 점차 고기를 멀리하게 된 소위 영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제 학교 성적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Chapter 8

광야와 같이 (1990)

1990년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가족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때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마치 죽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그 말에 격렬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달 거의 끊임없이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상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도 준비하지 않으셨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Margit Sandemo의 «Sagaen om isfolket»을 읽으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어머니께 영적으로 좋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잃어갔고 육신은 쇠약해졌으며, 의붓아버지는 상황을 단호하게 바로잡지 못하셨습니다.

이 시기의 가정적 시련은 어쨌든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었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무렵 절망 속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내가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면의 «커다란 엉킨 매듭»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매듭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풀려버렸습니다. 이때가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첫 기억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누가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

—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진리에 대한 강렬한 갈증이 내게 임했고, 나는 Oasen 센터의 도서관이나 베르겐(Bergen) 중심가의 도서관에서 초자연적 현상에 관한 책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성경은 멀리했는데, 이는 무의식적인 거부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또한 이른바 «대안적인 서적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도서관에는 예수님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에서 가장 고증이 잘 된 책인데도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1990년과 진리를 찾던 나의 여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북클럽 Energica 등에서 나온 «대안적인 서적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왜곡된 형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 속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주의와 관능 등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진리에 대해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한 «영적 사상» 때

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면의 거부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이제야 뒤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오늘날 나는 이 거부감이 내 안의 죽음과 같았음을 깨닫습니다. 영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침례를 통해 그 죽음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어야 한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 요한복음 12:23-26

이 시기 동안 나는 채널링, 텔레포테이션, 유체이탈, 염력, 자동 기술(auto-matic writing)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매들이나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익숙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낯선 영역인데,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런 것들을 장난삼아 접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것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 이러한 관심은 진리와 성령님에 대해 교만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입니다. 비록 본인은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실상 그 안에는 아무런 영적 실체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위자 보드(Ouija board)와 같이 사람들이 '영계'와 접촉하기 위해 장난삼아 하는,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실질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명을 함으로써 그 계약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든 구체적인 행동으로든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되면, 그 자체로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내 어머니는 부정적인 하향 나선 속에 갇혀 계셨고, 주변의 누구도 어머니의 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분별해 내지 못했습니다.

Chapter 9

고등학교 시절 (1991-94)

필링스달렌(Fyllingsdalen)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나의 성적이 떨어졌던 것과, 선생님 중 한 분이 나의 저조한 성적에 놀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인 수학에서 ‘S(최우수, Særdeles godt)’를 받았고 평균 ‘M(우수, Meget Godt)’을 유지했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내가 실제로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상황이 본격적으로 기력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던 전환기에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비에르게달렌(Bjørgedalen)으로 이사를 가면서 등굣길이 멀어졌고, 베르겐스 티데네(Bergens Tidende)가 조간신문이 된 1991년부터 나는 새벽 5시경에 일어났습니다. 바를리아베이엔(Barliaveien)에 있던 나의 신문 배달 구역은 새로 이사한 집에서 4.5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나의 정신적 수행 능력은 떨어졌고, 집에 돌아와 숙제를 마치고 나면 너무나 기진맥진하여 오후 시간의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졸면서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도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걱정하셨지만, 그 시기에 어머니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낮 시간을 마르기트 산데모(Margit Sandemo)의 «이스폴케트의 전설»(Sagaen om Isfolket) 같은 책을 읽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소위 영성가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보낸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가혹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어머니가 벼랑 끝에 서 계시면서 마법과 신비주의, 그리고 «로맨틱한» 책들에 유혹당하며 시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미지근함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기에 예수님에 대해 읽었던 그 책들이 사실은 보기 좋게 포장된, 거짓된 영성을 담은 가짜 이야기들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거짓 영성이라고 말할 때 많은 이들이 내가 오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실이며 내가 거듭난 이후 직접 목격한 바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나 다양한 «영적»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려 하는 것처럼, 위조된 메시아에 대해 쓰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경우, 15세 무렵부터 이 주제들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는데, 거듭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교만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경험한 것들의 일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볼 수 있

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실재합니다. 그러나 참되고 순수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나의 미래의 아내는 마법을 행하는 지인들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 또한 노르웨이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막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건들을 조금 앞당겨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994년에 Statistical Science Magazine(Volume 9, Number 3)에서 성경 창세기를 바탕으로 한 ‘등거리 문자 서열’ (Equidistant Letter Sequence, ELS)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은 도론 위츠툼(Doron Witztum), 엘리야후 립스(Eliyahu Rips), 요아브 로젠버그(Yoav Rosenberg)가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중적으로 ‘성경 코드’ 라고 불리는 현상을 다룬 몇 안 되는 과학적 저술 중 하나입니다. 당시 나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정밀함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었기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1995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hapter 10

년 포콜 농장

Bergen에 있는 Høgskolen i Bergen에서 기계공학 공부를 시작했다가 실패한 후, 저는 Hedmark의 Stange에 위치한 유기 역동 농법(Biodynamic) 농장인 Fokhol Gård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 년 동안 일꾼으로 일하며 건강한 음식과 유익한 육체노동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서 일 년을 채운 첫 번째 실습생이었는데, 작별 저녁 식사 때 고기완자(kjøttkaker)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는 흔치 않은 일이라 아주 특별한 대접이었습니다. 흔히 농부들은 고기를 꽤 많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제가 있던 시절의 Fokhol Gård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농장의 운영 방식은 Steiner 철학의 일부였으며, 사회 전반에 흐르는 일반적인 «영적인» 저류의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선량하고 진리를 찾는 많은 사람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은 순수함과 농약 사용 절감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Steiner가 가르친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예수님을 주와 스승으로 고백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침례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에 관한 대중적인 책들을 보면 Gaia나 '대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눈이 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들로 자신을 정체성 지어야 합니다.

실무적인 면에서 농장은 960 mål(약 96헥타르) 규모였으며, 저는 Deutz-Fahr와 같은 크고 기술적인 트랙터들을 포함해 몇 대의 트랙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임무와 트랙터 운전을 즐겼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당시 생산량의 약 90

저는 예전에 수십 년 전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머물던 빈민 구제소(fattigmannshus)였던 본채(hovedhuset)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지내던 꼭대기 층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바람에 흔들리며 들판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곡식들의 물결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풍경 위로 파도가 치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쟁기질 후에 드러나는 깊고 검은 흙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영양분이 풍부한 아주 훌륭한 토양이었습니다.

Fokhol Gård에서 저는 Marit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 실습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농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집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그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에 당황할 수 있겠지만, 유유상종이라는 말

처럼 부정한 영들과 친숙하여 몸 안팎에서 영계의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시 저는 영적인 세계가 실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부감 없이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부정한 영들이 다양한 부정한 활동 등을 통해 인간에게 결속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삶에 침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훗날 제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하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Fokhol Gård에서 저는 자연적인 물리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기운을 느끼는 등 기이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순결과 빛입니다. 어둠과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는 물질적 풍요를 갈망하고 자연스러운 범위를 넘어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을 좇는 것이 인간을 진리에 대해 무디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로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습니다. 당시 저의 새로운 친구가 제게 말하지 않았던 사실은, 그녀에게 따라다니는 일종의 영적 조력자 (åndehjælper)가 있었고 이것이 그녀를 어느 정도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를 목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이 일로 인해 부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 때나 지금이나 분명해 보입니다.

Chapter 11

년 대안 네트워크

1996년이 되었고, 저는 대체 복무를 시작하기 위해 오슬로(Oslo)의 딜링외위(Dillingøy)로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 복무를 선택했으며, 당시에 이러한 선택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오슬로 퇴위엔(Tøyen)에 있는 Alternativt Nettverk를 돕는 일을 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VisionWorks AS는 잡지 'Visjon' 발행과 더불어 홀리스틱 사고와 대안 영성 분야의 강연, 박람회, 코스 및 워크숍을 주최하는 기업입니다. 이 단체는 1992년 Øyvind Solum과 Roald Pettersen에 의해 Alternativt Nettverk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Alternativt Nettverk에 대한 노르웨이 대백과사전(Store Norske Leksikon)의 설명

Alternativt Nettverk는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Alternativmessen(대안 박람회)이라고 불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더러운 영들에게는 꿀단지과 같은 곳이며, 그들은 요가, 치유의 돌, 에너지, 힐링, 채널링(kanalisering) 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강화하는 많은 것들을 다룹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더러운 영은 깨끗함을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속아 넘어가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다행히도 그 일은 몇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군요. 오슬로 스펙트럼(Oslo Spektrum)에서 운 좋지 않게 차 한 대에 꽤 큰 흠집을 냈고, Alternativt Nettverk는 그로부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은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더러웠고, 방에서는 소변 냄새가 났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를 마주하기도 했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치아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시기였고, 그 결과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밀접하게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의 열매는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그때를 되돌아보면 입안에 씹쓸한 뒷맛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 이면의 영이,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온 마음을 쏟았던 그 사상 뒤에 있는 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hapter 12

년 파게를리 캠프

1997년, 저는 Skurdalen의 Geilo에 위치한 Fagerli Leirskole에서 남은 대체 복무 기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바뀐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6개월을 추가로 더 근무했습니다. 저는 모든 업무를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스노보드 강습, 산행이나 산악 스키, 객실 청소, 그리고 주방에서 수프나 빵, 롤빵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야외학교에는 주말 손님들 외에도 평일 동안 대략 80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산업용 반죽기와 스팀 기능이 있으며 굽는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디지털로 제어할 수 있는 크고 근사한 프랑스제 오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주방 당번이 되어 손님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할 때면, 저는 주방 업무뿐만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교적인 즐거움 속에서 제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어 기쁘게 일했습니다. 요리는 우리가 똑같은 레시피를 따르는데도 어떻게 제 빵이 그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죽을 치대고 다루는 솜씨에 달려 있었고, 저는 이를 위해 오븐 프로그램을 실험해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승마 또한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의 몸을 닦고 안장을 엮는 법과 마구간을 청소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저에게도 대부분의 아이들 만큼이나 생소한 일이었지만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는 작은 통나무 집에서 지냈는데, 문을 들어갈 때는 몸을 굽혀야 했고 안에서는 겨우 똑바로 설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제게 그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GoI에서 운전면허를 땀고 지게차 운전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Chapter 13

년 어머니의 죽음

1998년, 어머니께서 마흔여덟 살의 짧은 생을 뒤로하고 마지막 생신을 보내신 직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Knarvik에 있는 집을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눈에서 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직후, 저는 외할머니 댁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는 거실에 계시지 않았는데, 제 새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유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내 형제들에게는 묻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그랬습니다. 내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돈을 다 써버렸다고 말하며, 내 삼촌 중 한 분이, 의붓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그 말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Ørnahaugen의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과 어머니의 저축액 등 약 600,000 크로네를 결혼 생활에 보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병환에 대한 책임을 저희에게 돌리려 했을 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압적인 펜 놀림 한 번으로 그는 우리의 유산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재혼했고, 그의 새 아내는 집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형제 Tom은 어머니가 결혼 생활에 가져왔던 것 중 아무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나는 Lars Erik만이 그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이모도 외할아버지로부터 Ask에 있는 땅을 물려받지 못했고, 오직 세 아들만 각각 한 필지씩 할당받았으니, 지금 일어난 일은 사실 가문의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 Jenny Gjertine이 2025년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어머니의 유산 몫은 고작 용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농장도, 부동산도, 그 무엇도 없었으며, 그것을 다시 세 아들이 나누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직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Fagerli Leirskole에서의 제 업무도 그해에 끝이 났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저는 Oslo의 한 서점에서 2,000페이지가 넘는 「Urantia-boken」 (유란시아 서)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10년 동안 그 책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책은 인류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복잡한 설명들과 거짓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방대한 공을 들인 저작물이지만, 깊이 파고들어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진리를 모조한 위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 그 기원을 철저히 연구한 끝에 결국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책은 자동 기술 (auto-dictated)을 통해 채널링된 자료였으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습

니다. 저 또한 그 책의 사로잡힘 속에 있었고, 때때로 Oslo에서 열리는 연구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열정적으로 몰입했고 그것이 겉으로도 드러났기에, 모임의 리더는 저를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1998년 말, 저는 Bergen 외곽의 Knarvik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막 치른 후였고, 일상은 슬픔을 견뎌내며 일자리를 찾는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Bergen의 Manpower를 통해 몇 달간 일했는데, Kokstad에 있는 Hansa와 나중에는 Åsane의 Toppe에 있는 Solberg Dekk 창고에서 근무했습니다. Solberg Dekk에서는 제 업무 능력에 만족하여 정규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저는 Knarvik Senter의 관리인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는 평소처럼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가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를 보살펴 주었으며,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느꼈고,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보통신공학 (teleteknikk) 엔지니어 과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기에, 먼저 수학과 물리 성적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당시 제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머리를 계속 길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원래 미용사였고, 직장 생활의 마지막에는 Haukeland Sykehus 근처의 "Solei Frisørsalong"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그래도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공과대학 예비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조금은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를 기르는 실험은 이제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리를 잘라주던 남자 미용사는 그 긴 머리카락을 잘라낼 때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마침내 그것을 비워내고 밤에 잠잘 때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덮이는 일 없이 잘 수 있게 된 것이 큰 해방감이었습니다. 직접 머리를 깎는 법을 배운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으니, 아주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곧 아내가 될 사람이나 제 딸들의 머리를 예쁘게 깎아주곤 합니다.

Chapter 14

년 폴리테크닉 대학

1999년의 일입니다. 저는 베르겐(Bergen)에 있는 Polyteknisk Institutt에서 수학, 물리, 화학 등을 다시 공부하였고,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독일어만큼은 예외였는데 여전히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해에 저는 저와 마찬가지로 공학부 예비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Petter Arild Heitman을 알게 되었습니다.

Chapter 15

HIA Grimstad (2000-02)

Bergen의 Polyteknisk Institutt에서 학년도를 마친 후, Petter와 저는 Grimstad에 있는 Høgskolen i Agder로 함께 가서 정보통신공학(teleteknikk)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Richard Paulsen이라는 좋은 학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개발이 제게 어느 정도 은사가 있고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성적도 그에 따라 잘 나왔습니다.

2001년이 되었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학교 학생회장이 되었으며, 2002년 초에는 시(kommunen)의 요청으로 Sri Lanka에서 온 4-5명의 미성년 망명 신청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Grimstad에서 공부를 병행하며 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즐거우면서도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Bergen과 Trondheim 등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를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추천서를 받았지만, 사실 그때의 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면이 있었고 때로는 운전할 때 과속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Chapter 16

NTNU Trondheim (2003-04)

200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스타드(Grimstad)에서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던 중, 트뢰넬라그(Trøndelag) 출신의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으며, 함께 작업했던 두 명의 동료 또한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좋은 학우들 덕분에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약 2년 동안 학생회(Studentrådet) 의장을 맡았고, 같은 기간 대학 평의회(Høgskolestyret)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직원들과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덕분에 저는 대학에서 학생 자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세 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학교 측에서 중단했던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식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대학 평의회에 제안하고 설득한 것도 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2003년 가을, 저는 NTNU에서 통신 기술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트론헤임(Trondheim)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Sølvi Myklebust는 그곳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저는 그녀가 신앙을 삶의 최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으나, 저 또한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이를 위험 신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Lade에 위치한 Falkenborg Studentby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4년에 저는 건물주에게 200개의 접속 지점을 갖춘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설치, 장비 및 설정에 관한 모든 계획을 스스로 세워 주도적으로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장비를 주문할 때 Telenor 매장의 영업 담당자는 개인이 이 정도 규모의 설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Falkenborg Studentby의 주인은 관리인과 보조 청년의 도움을 받아 제가 이루어낸 성과에 만족해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Chapter 17

Oslo (2005-06)

2005년에 저는 NTNU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는 동시에 Bærum의 Jar로 이사하며 Software Innovation에서 트레이니(trainee) 및 시스템 개발자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NTNU에 석사 논문을 제출한 직후인 200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는 학업의 마지막 박차를 가하며 풀타임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수개월 동안 매일 12 16시간씩 일해야 했던 고된 강행군이 마침내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2006년 말에 저희는 Kløfta의 Lindeberg로 이사했고, 저는 Element Logic에서 같은 직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Mohagen 2 공동주택에 거주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이사회 의장(styreleder)을 맡아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비교적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Chapter 18

구원이 문을 두드리다 (2007-08)

2007년, 우리는 첫 아이가 태어난 직후 Torvikbukt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한 동안 가장 친한 친구 근처에 살고 싶어 했고, 저는 Element Logic에서 개발자로 계속 일하는 데서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의 재택근무직으로 전환하여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동시에, 남동생의 어린 시절 친구가 새로운 회사를 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Torvikbukt에서 8개월 동안 살다가 Bergen 외곽 Frekhaug 근처의 Fosse로 이사했고, 2008년 8월에 집을 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문이 많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느 문이 옳은 문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 내게 올바른 문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 문을 통과해 천장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는 광활하고 통풍이 잘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눈이 닿는 곳까지 유리 벽이 솟아 있고, 내 앞에는 걸을 수 있는 수정이나 유리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각상 같은 형상들—살아 있는 듯하나 살아 있지 않은—이 수정 바다를 깨뜨리지 않고 뚫고 나옵니다. 그것들은 마치 현대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역동적인 조명 쇼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살아 있는 예술 작품 같습니다. 완전히 밖으로 나오면, 그것들은 다양한 자세로 굳어졌다가 다시 조용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멀리 소들이 풀을 뜯는 산이 보이고, 사람들이 무리지어 테이블에 앉아 하루를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환상적인 자유와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 그 꿈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 구원의 꿈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꿈은 앞으로 임할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아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구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제 삶의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Mark 9:23).

”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

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 히브리서 10:16-31

때는 2008년이었고,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저는 제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Christian Fellowship Nordhordland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Knarvik의 한 체육관에서 열렸고, 우리는 그곳이 우리의 첫째 딸 Olivia를 세례가 아닌 축복을 해줄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중에 합류했을 때 저는 찬양 중에 기쁨을 경험했고, 신자들은 우리를 향해 개방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읽어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지적 교만(Proverbs 16:18)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었고, 덕분에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Christian Fellowship Nordhordland에 출석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온 한 전도자가 방문했습니다. 설교 후에 그는 제게 다가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과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직설적인 태도와 단어 선택에 놀랐지만, 제가 무엇을 약속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이 말을 따라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과 주인으로 고백하고(Romans 10:9-10),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과 그분의 은혜에 감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새 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는 내 키보다 꽤 큰 거대한 흰 달걀 바닥에 서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 달걀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 물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달걀 밖에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 내부를 비춥니다. 나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마치 나의 모든 무질서함이 잠시 동안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 전도자가 내게 말했던 것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평안이 내면에서 느껴졌습니다.

—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은 환상

그 전도자는 제가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이 평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제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며칠 동안 제 모습이 낯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성령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Proverbs 18:21). 성령께서는 제가 제 말을 지키고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계시해 주셨습니다(James 3:6). 성령께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적 의미 모두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이제 이 경험이 제 소명의 핵심이었으며 적극적으로 가꾸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진리를 나누도록 부름받았지, 행동이나 말을 통해 파괴와 죽음을 퍼뜨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서른세 살의 평생과 1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분산된 그러한 첫 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할 때,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줄 세 마디 말이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성도들—에게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관능과 욕망과 신비주의가 있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

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겁게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겁게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데 그는 불의의 삶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 베드로후서 2

지나고 보니, 저는 그날부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Psalm 91:4)—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창조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

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음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 시편 18:1-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평안을 찾고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이해에 도달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달걀 안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제게 주신 새 영에 대해 증언해 주셨던 때를 회상합니다. 이것은 저의 선한 형제 Oddmund Solheim이 저를 물속으로 인도하여 세례를 받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요한복음 3:3-5

2012년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저는 영 안에서 강력한 경험들을 했지만, 제 마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두렵게 느껴졌던 것은 제가 거듭났을 때 제 눈이 열려 밤에 우리 방에서 인간처럼 생긴 존재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Ephesians 6:12). 이런 일들은 보통 교회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저는 어느 일요일 모임 후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는 밤에 침대 옆에서 있는 한 남자를 본 어머니와 세 살 정도 된 그녀의 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다음 날 어머니는 그것이 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축했습니다. 그때 딸이 어머니에게 그날 밤 방에서 있었던 그 남자가 누구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증인을 가질 수 있다면, 제 경험도 꾸며낸 것이나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 삶의 행로를 두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날 때 과거를 정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우리 자신의 사람들을 돌보고 무장시키는 데 의식적이어야 합니다(Romans 8:14).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2 Corinthians 10:5). 그래야만 지상의 하나님의 몸이 폭풍이 몰아치고 긴장이 끊어질 듯 위협할 때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짜깁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은비한 가보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던져버리고, 그분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Hosea 4:6). 우리가 성령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과 함께 걷지 않기 때문에 회중은 메마르고 젊은 세대는 모임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아 있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지 않은 회중 안에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1 Thessalonians 5: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 안에 이런 일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형제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제는 환상적이었고 저는 잘 성장했습니다. 도전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과거의 움켜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육체와 달리,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옛 사고방식은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과 교제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써, 비록 항상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단계별로 변화됩니다(2 Corinthians 3:18).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2

그럼에도 성경은 책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복되다 할지라도, 생명은 책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옵니다(2 Corinthians 3:6).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돕기 위해 성경에 그분의 말씀을 주셨지만, 생명 그 자체는 오직 그분—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Colossians 3:4)—으로부터 오며, 이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예수님 친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며(Matthew 25:46),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2 Thessalonians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

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갈라디아서 2:19-21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말씀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며(Psalm 119:160), 우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시험하여 그것이 선하고 옳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과거와 미래에도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시험을 견뎌낸다면, 말씀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히브리서 4:12-13

새로운 탄생 이후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 감정, 그리고 옛 사고방식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습득한 많은 것들은 종종 다시 배워야(unlearn)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여 걷고 기능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 갈라디아서 5:16-26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단계별로 전진합니다. 이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옳은 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 히브리서 12

지나고 보니, 저는 비록 2008년에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께서 제 평생 동안 흡수했던 거짓 가르침들을 제가 버리도록 돕기 시작하셨음을 이제 이해합니다. 이 과정은 Christian Fellowship Nordhordland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역 모임과 회중에 환영받았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가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도 전도자였습

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새 영과 일치하지 않는 실체와 부정한 것과의 연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Colossians 2:8). 경험을 통해 저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육체와 성령이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봅니다(Galatians 5:17).

Chapter 19

Frekhaug (2009)

우리는 2009년에 접어들었고, 그해에 우리 지역 사정에 밝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Frekhaug의 Fosse에 있는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살았는데, 개성이 뚜렷하고 정치에도 밝으며 매우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농업, 자연 및 야외 휴양지(LNF) 구역으로 규제되어 있던 우리 부지 일부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3.2 mål 중 1 mål를 주거 용지로 변경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건축 허가가 나면 우리로부터 그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책의 뒷부분에서 다시 이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의 첫 제안가는 약 350,000 kroner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2013년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후 경제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미리 언급해 둡니다.

Chapter 20

년 기독교 교제

2010년은 제 새로운 삶의 초창기였던 고난의 시기 중 한가운데를 지나는 해였습니다. 당시 제가 복음에 반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었기에, 내면의 성령께서 새로운 삶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베드로전서 5:8)과는 별개로 교회의 리더들이 저를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갈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회의 장로 중 한 분이었던 Morten Gundersen은 나중에 저에게 말해주기를, 제가 내면의 싸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랫동안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을 세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마치 제가 과거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기 때문에 옛 삶이 저를 다시 끌어당기려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거듭났을 때와 그 이후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결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그 문을 열어둔 채로 유지하게 만드는 물건, 행동, 혹은 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증거를 되돌아보며 깨닫게 된 경험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믿음의 형제 Arnt-Viktor Pettersen을 만났는데, 그는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집 안에서 «괴롭히는 영»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자매님에게 주시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집 안을 돌며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녀의 아들도, 한 번은 그들이 영을 쫓아냈을 때 그것을 직접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온 집안을 돌며 기도하고 선포한 뒤 마지막에 차고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차고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나중에 경험하게 된 사례들, 즉 자신이 가진 물건이나 과거를 온전히 끊어내지 못해 그것이 불결한 영들의 존재를 허용하고 통로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떠올리게 합니다(요한일서 4:1).

다시 2010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저는 밤마다 어두운 존재감을 가진 영들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내야 할 것들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종 옛것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청산과 온 마음으로 새것을 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뒤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을 거스르는 저주나 영적인 굴레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행한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요한일서 1:9),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

를 끼친 이들을 용서하고(마태복음 6:14-15), 질병과 문제의 통로가 되는 것들—그것이 생활 방식이든 소유한 물건이든—을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 요한복음 8:1-11

예수님의 특별한 점은 우리를 정죄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를 벗어나도록 도우시며, 이는 옛 삶을 죽음에 넘기고 그분과 함께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로마서 6:4, 요한복음 8:36). 불결한 영들과 관련된 물건들에 관해서라면, 이는 돌(수정)이나 드림캐처 같은 것들을 다루는 비그리스도인 구도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술(magic)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노르웨이에서 흔히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 에스겔 13:18

물건에는 과거의 이력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집 안에 들일 때 우리가 인지하든 못 하든 그것을 수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죄와 나쁜 습관들을 떨쳐내기 어렵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사야 1:18). 그러한 결박

을 끊으려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청소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많은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먼저 자신이 중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알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 에스겔 18:21-32

이 일에서 특별한 점은 거룩한 자들의 가장 깊은 «무리» 안에서도 죄를 던져 버리지 못한 신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며 커다란 축복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저 역시 믿음의 친구이자 형제인 이와 이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까운 형제가 저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주문(formel)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제 안에서 강한 불쾌감이 느껴졌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권력, 재물, 혹은 마법 같은 것들에 사로잡히거나 미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견고한 진(stronghold)**»이라 부르며, 한 사람을 에워싸거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고린도후서 10:4). 제 형제가 했던 그 행동은 저와 제 가족에게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마태복음 15:18), 물건들 또한 견고한 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 말,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며,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가서, 저의 경우에는 수년간 영적인 구도자로 지내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결한 영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에베소서 6:12).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저는 그 안에 갇혀 있었고 그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 삶과 옛 삶 사이의 전쟁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내 곁에 누워 있던 어느 날 밤의 일이 특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 몸은 뺏속까지 얼어붙는 듯 차가웠고, 공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직감했고, 순전한 절박함 속에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싸움에서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야고보서 4:7).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어떤 빛이 다가와 저를 감싸 안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저는 여느 아침과는 다른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전날 밤 저를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자유가 처음에는 일시적이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의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갈라디아서 5:1).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간증 중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 마태복음 10:27-28

싸움은 계속되었고, 그 와중에 저는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전부터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지식이었습니다. 제 영은 거듭났고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강력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제 영은 거듭났지만, 제 마음(생각)은 여전히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Urantia-boken이라 불리는 책을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날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적그리스도적 가치와 영적 흐름을 담고 있는 이 사상이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흉내 내면서도, 그분의 신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제거해 버립니다.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는 책을 쓸까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저의 경우, 결별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Trond 형제와 Thomas 형제

같은 훌륭한 믿음의 형제들이 그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두 훌륭한 형제들이며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 모두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Chapter 21

년의 선택과 형제들

우리가 2011년에 이르렀을 때, 교회의 장로 중 두 분인 Magnar Askeland와 Morten Gundersen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제가 처한 영적 전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형제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거듭났지만, 제 이성인 성령께서 제게 보여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몇 가지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성령께서 이 만남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내면 깊숙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아내에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책을 골라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금박 테두리가 있는 약 2000페이지 분량의 저작물인 Urantiaboken도 있었는데, 저는 당시 이 책을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 진심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주었고, 그 후 교회의 형제들이 모여 책들과 다른 물건들이 담긴 종이상자 하나를 불태웠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미혹과 불결한 것들이었습니다(사도행전 19:19). 저는 그때의 느낌이 마치 자신의 눈을 뽑아내는 것 같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나중에야 그것이 일종의 축사(deliverance)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책들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결한 영들의 움켜쥔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실 수 있었습니다(고린도후서 5:17). 저는 2008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 내면과 주변에 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셨으며 제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생명 아니면 죽음이 담겨 있으며, 그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잠언 18:21). 이는 최후의 심판이 내려지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결코 미지근하거나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 요한일서 2:19-25

저는 제가 하늘 아버지를 위해 일하려면 저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이것이 제가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임을 내면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도자 노릇을 해왔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저를 당신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에베소서 2:8-9).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물론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제게는 약점들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각자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외적인 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지 자주 생각해 보지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 빌립보서 2:12

책들이 다 타버리도록 불씨를 휘젓고 있던 사랑하는 신앙의 Thomas 형제가 저를 바라보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제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Thomas 형제는 여러 차례 예언의 은사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식하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은사입니다.

두 장로 중 한 분인 Magnar Askeland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일들과 제가 내린 선택들을 항상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형제들 중 한 분의 집에서 Thomas 형제, Trond 형제 그리고 다른 여러 형제와 함께 가졌던 남성 모임이 내 부분열과 개인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축복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우리 모임 안에 불결한 영들의 개인적인 현상(manifestations)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를 모임의 리더 중 한 명으로 여겼던 사람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임의 성도 중 한 명에게 질병의 영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남성 모임에서 그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Kristent Fellesskap의 목사 중 한 분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때때로 일을 그르치기도 했으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나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을 목격한 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그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그는 구역질을 느꼈으나 참아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후부터 모임이 이를 알아차릴 만큼 깨어있지 못한 사이에 공격들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칼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으며, 모임이 있던 금요일 당일에는 모임 전에

자주 내면의 불안과 저항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겪고 있는 도전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으며, 결국 모임이 영적으로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거짓 고백들이 제기되면서 모든 것이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데도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일한 사람은 제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천사의 방문을 받기도 했는데, 그 천사는 그를 향한 저의 말들을 확증해 주었고 통증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모임에 공유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는 저녁에 제게 전화를 걸어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스스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어난 모든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현상을 드러냈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 사람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불결한 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릴지라도 말입니다. 또한 교회의 장로 중 한 분이자 항상 저를 기뻐해 주었던 분으로부터, 저와 저의 사역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저에 대해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 중 한 명이 당시 자신이 많은 악한 말과 행동을 했다고 고백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미성숙하게 말하고 행동하거나 불결함 때문에 많은 은사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일에서 결코 결백하지 않으며 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Øivind 형제는 어느 날 제게 인격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매우 선하고 옳은 말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용서는 신속히 하며, 말하기는 더디 하십시오(야고보서 1:19). 깨어 있으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 올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 그 안에 뿌려지는 파괴를 멈추십시오. 그것을 밝은 곳으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 또한 양 떼를 돌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마음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 잠언 4:20-27

이와 병행하여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저는 Amazon.com 서점을 통해 목사님들, 전도자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쓴 많은 디지털 서적들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Youtube.com에서 많은 간증을 보며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 책들의 일부 내용을 탐독하며 성경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니다. 성도들의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금을 캐는 과정처럼 묘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것이 선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파헤치고 시험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 요한계시록 3장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2008-2012년이라는 영적 유년기의 한복판에 있었고, 제가 읽고 시험한 성경 말씀 중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약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제가 자주 의아해하고 읽는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지 못했을 때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제게 직접 보여주셨고, 어떤 때는 몇 년이 지나서야 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이는 꿈을 꾸고, 어떤 이는 환상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저는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많은 간증을 읽고 보았는데, 이것은 저를 몹시 두렵게 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성경과 연결하고 저 자신의 표적과 기사의 경험들과 대조해 볼수록, 저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마태복음 25:41), 울며 이를 감이 있을 풀무불(마태복음 13:42),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마가복음 9:48),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던 부자(누가복음 16:24)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성경 구절은 아주 많습니다. 지옥을 보여주시는 경험을 했거나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것을 **강렬하게 파괴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이 존재하며 모든 면에서 천국과 완전히 다르며 선함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악한 분이라고 주장할 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돌처럼 완고하여 자신의 악함에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십시오(마태복음 10:28). 스스로 있기를 선택한 곳 외에 그들이 갈 수 있는 다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냉혹하지만,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버스나 다른 장소에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덕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해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 특정한 상황을 위한 직접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에 앉아 있을 때 제 옆에 앉은 남자를 위한 세네 마디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에게 몸을 돌려 그 말씀을 전했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증거로서 그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신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영으로 감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도 될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버스에 아주 조용히 앉아 있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제자매들이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은사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 고린도전서 14:1-3

근본적으로 도전적인 시기였지만, 또한 아름답고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저의 갈망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두드렸기에 문이 열렸고, 찾았기에 찾아냈습니다(마태복음 7: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스승으로 모셔 들이기로 선택했을 때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 제 영은 성장했고,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젖을 마시는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고린도전서 3:2). 저는 2011-2013년 기간 동안 버스에서나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3년 중반쯤, 육신에 속하여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유명한 전도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 열정적이었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많은 치유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전도자를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당시 Hamar로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들을 증언한 직후였는데, 이것이 일종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 사역의 모델로 여겼던 분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의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시기에 Haraldsplass Diakonale Sykehus에 있는 Norsk Organisasjon for Kvalitetssikring av Laboratorier utenfor Sykehus (NOKLUS)

에서 일하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무신론자들과 비신자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한 식당 직원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녀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마치 강력한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NOKLUS와 함께 창립 20주년 기념 여행으로 Iceland에 갔을 때 Gardermoen 공항에서 Iceland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안수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명의 동료와 앉아 있다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자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발이나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들은 반응하며 조금 당황해했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Bergen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상사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었습니다—저는 바람둥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코 한 적 없는 말을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런 말을 제 상사에게 전한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료가 무신론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뛰어났고 평균적으로 고학력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일부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제가 신앙을 나누고 개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용해 주는 훌륭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형제인 한 전도자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제가 목격한 모든 기적에 대해 비판했을 때, 저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튿날 출근했을 때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만약 이것이 저를 위한 길이 아니라면 이를 거두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직장에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쁨이 제 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 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내면에서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며칠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왔지만,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자신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말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들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에게서 소식을 듣거나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를 용서했냐고요? 네, 용서했습니다(골로새서 3:13).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때로 육신에 속하여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 «영적 유년기» 동안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요한일서 1:9),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온 존재로 그분이 실재하시며 모든 것과 모든 이 위에 뛰어나신 분임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제 마음으로 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듭난 영으로서 결정적이었던 해는 제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이었으며, 제 안에서 일어난 이 흔치 않은 변화를 조금이나마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Haraldsplass Diakonale Sykehus의 NOKLUS 동료들과 제가 다니던 교회인 Kristent Fellesskap Nordhordland의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NOKLUS

에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고용 초기에는 여러 동료와 영적인 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화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참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지워 나가시는 과정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2013년 기간에 저는 예수님이 제게 행하신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기에, 함께 일하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묘한 혼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환기의 삶이란 대개 그러한 법입니다. NOKLUS에서 저는 한 동료의 허리가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녀는 눕거나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투병 중에 잠시 직장에 들렀을 때 제가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기도해 주어도 될지 물었습니다. 그다음 해 여름, 그녀의 허리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 자신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 변화는 극적이었으며, 우리가 거듭날 때 진정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 제가 깨어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마가복음 16:17-18). 기도는 단순했지만 안수하며 드린 기도였고, 저는 하나님께 그녀를 낮게 해달라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항상 주의 깊게 들어주었으며 언제나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한 사람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녀가 바닥에 쓰러질 뻔하며 잠시 의식을 잃은(blackout) 것처럼 보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해 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현상을 본 적이 있으며, 제 아내가 될 사람에게 처음 몇 번 기도해 주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며,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요한복음 14:20).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십니다(요한일서 1:7, 야고보서 5:14-15).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내면을 정리하기 시작하셨고 그녀가 그분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이 시기에 저의 의붓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경제적인 도움을 거의 혹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학업 때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으나, 아이들의 생일 때면 약간의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저와 제 형제가 근본적으로 그에게 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나, 그는 저의 하나님 찾기를 거부했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의붓아버지의 형제로부터는 제가 그에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저의 삼촌이 아니라는 분명한 경고를 듣기도 했습니다.

Chapter 22

하나님의 보좌 (2012)

2012년 5월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했기에 더 이상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점까지 저는 수년 동안 포르노를 탐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놓아 주셨고, 그해에 제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히브리서 12:1).

저는 지하실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한 모든 저항을 내려놓았던 일을 기억합니다(로마서 12:1). 저는 아버지께 그분이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기꺼이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몇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집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Eldbjørg Fosse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위쪽 마당에는 그녀의 형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70세가 넘는 두 명의 믿음의 여인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들이 앞으로의 제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저는 Eldbjørg의 오금과 발바닥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고, 나중에는 그녀의 굽었던 등이 더 곧게 펴졌는데 그녀는 이를 매우 기뻐했습니다(이사야 61:1). 그녀는 믿음 안에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역에 있어 중요한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 형님의 남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하여 그를 위해 기도한 직후, 그는 생전 처음으로—심지어 건강했을 때조차 하지 않았던—예배(andakt)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를 방문하기 전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를 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내면에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들은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소망 가운데 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추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시편 126:5-6).

Eldbjørg를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저를 유심히 살피며,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묻곤 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녀는 기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몇 년 전 낙상으로 머리를 다쳐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최근 제가 전화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었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는 다른 고통이 존재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마태복음 9:37-38),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꾼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만이 아닙니다. 도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 사역에 인식하지 않고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누가복음 6:38, 말라기 3:10).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게도 많은 노르웨이 신자들은 미국의 형제자매들에 비해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면에서 훨씬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2012년 5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저는 «Kvinneforum Nordhordland»라는 기독교 여성 모임과 그들의 가정 예배 모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일원 중에는 Laila Nygård가 있었는데, 그녀는 Kristent Fellesskap Nordhordland에 출석하고 있었기에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뜨개질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러 간 것이라 생각했지만, 요약하자면 그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도 후에 그들이 전해준 말은 향후 몇 년 동안의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명확한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고린도전서 14:3).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임을 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를 아주 강하게 덮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영적으로 저는 일종의 경외심에 사로잡혔고 깊은 엄숙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사역으로 보내려 하신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도저히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스템 개발자로서의 제 커리어는 끝났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돌아해보면 이 모든 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가 2012년 5월 7일이었는데, 그들이 적어준 메모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이 시대에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고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습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구를 주실 것이며, 당신은 아마도 이전의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나뭇가지들이 서로 얹혀 있는 나무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뻐하십시오.
-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손의 근육처럼 힘이 될 것입니다.
- 당신은 이미 예비된 일 가운데 걸어갈 것이며, 문들이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시편 119:105).
-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분께서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 당신이 순종하기에, 앞으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 께서 저를 인도하신 과정들, 특히 몇 가지 핵심적인 사건들을 제 능력이 닿는 대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Chapter 23

축복과 배신 (2012)

2012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Nordhordland Kristne Folkehøgskole의 기숙사 방 중 하나에서 일고여덟 명의 청소년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동안 일어난 기적과 치유의 역사에 압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19). 또한 그들은 밤이 되면 마음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던 한 소년의 증언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신체적인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았기에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느껴보라!» 그러고는 그를 가리키며 그 문제를 쫓아냈고,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의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의 실체를 받아들이려 애쓰던 한 소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말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며 거듭났다고(요한복음 3:3) 말해주었고,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수영장에서 침례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라고 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무게감이 방을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늘 그렇듯이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0:9-10). 하지만 야간 경비원이 와서 제가 학교 구역 내에 머물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침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저를 쫓아냈고,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측이 재정적 보조금을 받기 위해 여름 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전도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24). 그날 학교의 책임자는 예수님을 뒷전으로 미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청소년들이 고백하는 신자의 표적과 기사를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써 이 상황조차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노르웨이 해안의 바다는 석유라는 검은 황금을 우리에게 주지만, 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50년 전 석유 개발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가난해진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26).

그해 제가 본 기적 중 하나는 IKEA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둘째 딸이 막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두 명의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 주었던 한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영상 속에서는 그녀의 발이 자라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며 많은 신자들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쨌든, 그중 한 여성이 자신의 양쪽 발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 전체가 아니라 발바닥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발

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두어 번 기도를 하자 양쪽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도, 기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마가복음 16:17), 우리도 이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 그녀가 저에게 요청한 것은 저에게도 조금 생소한 일이었지만, 아마도 그녀가 방금 생애 첫 기적을 경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쪽 발의 길이가 더 짧아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종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대화 끝에, 이것이 그녀의 믿음에 달린 일이라고 판단하여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녀의 친구에게 발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고, 그 위에 다시 제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둘 다 그녀의 발이 수축하며 짧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당시 [Youtube.com](https://www.youtube.com)에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양쪽 발의 길이는 2센티미터 정도 줄어들었고, 그녀 자신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적은 2012년에 일어난 일들 중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일이며 (히브리서 2:4), 사실 제가 이 회고록에서 그리 많이 나누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Chapter 24

년 1980년의 상처

2012년에 나는 매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독교 남성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모임에서 두 형제인 Thomas 형제와 Trond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나를 향한 어떤 이미지(환상)를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한 명은 책가방을 메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고, 다른 한 명은 내가 2층 침대, 즉 위아래로 된 이층 침대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에 그 시절부터 생긴 «구멍»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닫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였으니까요. 그 시절 많은 정신적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셨고, 한 번은 저를 차에 둔 채 술집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이에게 상처로 남기 마련이고, 이것은 제가 수년간 안고 살아야 했던 내면의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시기가 우리가 2층 침대를 사용했던 유일한 시기였으며, 동생과 방을 같이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명은 내가 2층 침대 아래 칸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것 역시 사실이었다. 내 남동생이 위 칸을 썼다. 그들은 내안의 구멍을 닫겠다고 말하며(사도행전 8:17) 내게 안수했는데, 그들이 손을 얹자마자 나는 즉시 온열 펌프에서 나는 것 같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인지하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온열 펌프를 들여놓았나?!' 참 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손을 떼자 그 소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내 안에는 새로운 평강이 임한 것 같았다(마가복음 16:18).

— 2012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두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살피심에 감사드린다(시편 56:9).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 읽기,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의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히브리서 5:12-14).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야 시련이 올 때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태복음 13:18-23)를 기억한다. 어떤 이들은 즉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시련의 때에 그들을 지탱해 줄 뿌리가 없다.

Chapter 25

Reinhard Bonnke (2012)

2012년 말,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Florida의 전도 학교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개인 돈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Eldbjørg와 처제에게 Florida에 있는 Christ For All Nations (CFAN)으로 가는 여정을 도와줄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CFAN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Jesus를 영접한 기록이 있는 Africa의 대규모 전도 집회를 이끈 유명한 독일 복음 전도사 Reinhard Bonnke가 이끌고 있었습니다(로마서 10:9-10). 그해 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분은 그들이 나를 도와 Florida에 갈 수 있게 하실 것과 내 아내가 이를 반대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전에 USA에 가본 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흥미도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Gerd는 Jesus께서 오셔서 그 예물은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고, 이는 내게 큰 기쁨과 함께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한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으며(예레미야 29:11), 그 모든 일이 내가 하늘 아버지와 나를 위한 그분의 일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내려놓은 직후인 바로 올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2008년에 Jesus께 ‘예’ 라고 답하고 2012년에 그분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을 것을 알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과정과 과거와 미래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도 인내심 깊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사역의 성격에 대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나는 내가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누가복음 4:18).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

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 에베소서 4:11-16

불행하게도 내 아내가 나의 사역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때때로 사역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내가 70세가 넘는 우리 자매님들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았을 때, 아내는 정작 우리 자신의 돈을 쓰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에 대해 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날 노르웨이에는 일부 여성들이 자신을 가정의 지도자로 여기는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Jesus Christ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 그에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편의 뜻에 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무신론적 서적을 이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마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혼인 언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의 여성 운동을 통해서도 이러한 흐름을 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운동 자체가 가정과 혼인 관계 안에서 지배적인 남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양극단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 마태복음 6:33-34

오늘날 복지 사회의 또 다른 경향은 일부 여성들이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온갖 책을 읽고 남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며,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자기 계발 코스 같은 곳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이는 일부 노르웨이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서로 다를 때조차도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Florida의 전도 학교에서 오후 강의를 끝나면, 우리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아주 비격식적이고 뚜렷한 조직 없이,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한 매춘부를 만났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감옥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발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있었으며, 수술로 제거하지 못한 충알 파편이 발에 박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소 비현실적이었지만, 우리는 그녀와 복음을 나누었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녀의 발에 손을 얹는 순간(마가복음 16:18) 그녀는 파편이 발에서 빠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나는 USA에서 많은 기쁜 일들을 경험했고 그곳 사람들이 서구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보기도에 열려 있으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은 예외입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청소년들은 복음을 나누고 기도해주기가 보통 수월하며, 그룹으로 만났을 때 그들 중 한 명에게 일어난 치유와 간증은 그들 모두에게 증거가 됩니다.

Florida에서 Reinhard Bonnke와 함께 전도 학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환상적인 기회였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내게 보여준 것들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영감을 주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그 일주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여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듬해에 전도 학교에 있었던 여러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2013-2014년에 Colorado Springs로 보내지는 것을 확증하고 도와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나중에는 나는 왜 그분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내 주변의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의 운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는 전형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어디서든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상당히 활동적일 수 있으며 때로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예레미야 20:9).

특히 Oslo 중앙역에 가서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목격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Knarvik으로 돌아왔을 때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 모임의 한 형제가 하나님께서 Oslo 중앙역에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당시 내가 성도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반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씻어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사역 중에 보고 목격한 일들로 인해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거나 우리에게 성령의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졌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고린도전서 12:4-7). 나 또한 내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가진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권력이나 돈을 위해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시기나 분노는 우리 마음 주위에 지방층처럼 쌓여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를 둔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는 것에 대하여(데살로니가전서 5:6).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선택된 성도들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보는 것은 때때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불의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 잠언 4:18-24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Jesus Christ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한복음 1:1-14

Jesus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를 읽을 때, 그에게 나타난 분은 사실 하나님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Yahweh이셨습니다. 천사(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는 Jesus가 보냄을 받은 분이었던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Jesus는 우리가 그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성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는 분이 Yahweh임을 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분도 Yahweh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Yahweh께서 모세에게 - 출애굽기 3:2-4

Yahweh는 누구입니까? 바로 Jesus입니다. 그분께서 Emmaus로 가던 제자들에게 자신을 숨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지상을 거니셨던 분은 Jesus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아버지를 보고는 살 수 없기에(출애굽기 33:20)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Jesus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이는 그분의 백성들은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13:10-17

그렇다면 Jesus께서는 구약 성경과 예언서들 속의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성경에 마음을 열고 있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 데 미련하고 더딘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Jerusalem에서 이십오 리 되는 Emmaus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

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Jesus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Jesus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Kleopas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 누가복음 24:12-32

“당신이 Jerusalem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Jesus 나사렛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Jesus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과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Jerusalem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Simon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Jesus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Jesus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Jesus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Chapter 26

년 미국의 성경 학교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성경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안식년을 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저에게 주신 그분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느닷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제 아내 또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성경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Colorado Springs의 Rocky Mountains 산맥에 위치한 Woodland Park의 Charis Bible College였습니다. 이는 제가 짧은 전도 여행차 미국 Denver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직접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Florida에서 전도 학교를 다녔던 한 부부가 그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저는 티켓을 예약해 두었지만, 실제로 제가 옳은 일을 한 것인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짧은 일정으로 벌써 두 번째나 미국에 가다니 조금 무모한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다행히 떠나기 전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의 경험과도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4:29-31).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가 가라앉으려는 찰나,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 야고보서 1:5-8

때때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불확실할 때도 있지만, 확신을 얻게 되면 대개 그 선택에 대해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주신 확신은 성령님께서 제가 머물게 될 집 주인들의 이름 일부를 알려주심으로 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치인 이름인 Kaci Kullman Five가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분들의 이름이 Kaci Robbins라는 것을 알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몰랐지만, 그들 또한 Reinhard Bonnke의 학교에 다녔었고 Colorado Springs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가 권유하여 전도 학교 출신의 다른 형제인 Mike Sanchez가 Daniel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들은 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사는 도시에 바로 그 성경 학교가 있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Daniel Robbins와 그의 아내는 제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2012년에 CFAN과 Reinhard Bonnke와 함께 같은 학교에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학교를 보여주시고, 다음 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Denver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한 믿음의 자매를 통해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집회의 주최자인 Anh Le와 Michelle 부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Denver라는 지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Denver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열린 무대 형식이었고, 저는 모임에 온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실무를 이끌던 Bryan Schwartz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깊이가 있는 사람이지만, 깊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알지 못했지만, 몇 년 후인 2014년에 Marcus Wick 또한 저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깊이 파고들며 진리를 위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다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저마다의 자리가 있으며, 자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모든 책과 경험들은 저를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을 내려놓는 시점으로 인도했고, 그것은 2012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Denver에 머물며 Colorado Springs의 집과 행사장 사이를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여유 시간이 좀 생기자 Daniel Robbins는 저에게 Colorado Springs 주변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바이블 벨트'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여시어 우리가 Charis Bible College에 다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시 학교를 이끄는 Andrew Wommack에 대한 평안함이 느껴졌고, 비록 나중에 집에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아버지께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 그대로 어안이 병병해져서 차를 운전하던 형제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고, 이미 Frekhaug의 집을 팔면서 10만 크로네의 적자를 본 상태였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성경 학교에 갈 자금이라는 나의 도전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Galtenesveien 아래쪽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확신을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아내의 예전 친구로, Loddefjord에 있는 노르웨이 국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집을 팔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후의 몇 년을 위해 계획을 세워두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Thomas 형제가 집을 파는 것이 옳다고 그토록 분명하게 말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Frekhaug의 Fosse에 있는 집을 팔기 전에 많은 물건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오디오 시스템을 받아 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는 자신의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훈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지만(사무엘상 15:22), 저는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그 엄중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더러운 영들이 있는 그 사람을 방문하여, 그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의 베개에는 해골 무늬가 있었고 벽에는 수많은 무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운이 너무 강해서 침대 이불까지 벗겨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꾸짖으셨지만 저는 미숙했습니다. 제가 마땅히 했어야 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 더러운 영들은 쉼 곳을 찾으니(마태복음 12:43-45), 집안의 모든 죽음의 상징들을 치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요한일서 1:9),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십시오.” 제가 사역의 부르심 안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사람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면에서 더 나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변명하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총 다섯 명의 사람이 저에게 미국의 성경 학교에 관해 예언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고린도전서 14:3).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사도 누가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 누가복음 24:45

제게 말씀해주신 분들 중 한 명은 믿음의 Amy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네 아이를 둔 기혼자로 미국에 거주하며 전도자의 소명을 가진 분입니다. 다른 한 명은 전임 전도사인 Ikem Grigsby였습니다. 또한 제 모교회의 교우인 Trond 형제도 저에게 '성경 학교' 라는 단어가 들린다고 직접 말해주었으며, 방문하셨던 그 전도자 역시 저희 집에 계실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Robbins 가족 또한 Florida에서 Reinhard Bonnke와 함께 전도 학교에 다녔던 분들이었습니다. Amy 자매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 온 가족이 집을 가득 채워 미국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당시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Colorado와 Denver 전도 여행을 떠나기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짧은 전도 여행 후에 이제는 미국 성경 학교에 가는 것에 익숙해졌을 법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여주셨고, 저 또한 아버지께 그분의 말씀을 공부할 안식년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확신이 올 때까지 온전히 받을 내던지 못했습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또 다른 분은 역시 미국인인 John Natele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John Natale이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전도 학교 참가자를 통해 John이 진정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저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곳에서의 일은 끝났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십시오.

— John Natale가 저에게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John은 저에 대해 전혀 몰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의 성경 학교에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기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생각하면 평온하게 대처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시 세 아이가 있었던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는 우리가 정말로 미국의 성경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확신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Ikem Grigsby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의 중심에 제가 있었고, 아마도 저를 위한 꿈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05년 허리케인 Katrina가 Florida를 덮쳐 전 재산과 집을 잃기 직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임 전도사였습니다.

Ikem은 집과 차를 오가며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있습니다. 그때 저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는데, 받으려고 하니 갑자기 발신자인 저와 연결이 끊깁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비행기를 타러 달려가고 거의 이륙 직전에 도착합니다. 착륙 후 휴대폰을 보니 저로부터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모두 빈 내용이었습니다.

— 2013년 Ikem Grigsby의 꿈

Ikem은 꿈의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2012년 Florida 전도 학교를 통해 저를 알고 있었고 같은 페이스북 그룹에 속해 있었기에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여행할 때보다 훨씬 많은 짐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일에 대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미 그녀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진실로, 당시에 돈이 없었기에 신청을 주저하게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저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학교에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히브리서 11:1). 학교

측의 답변은 미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었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지원서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2009년에 우리를 찾아왔던 지역 개발업자가 이제 지방 의회를 통해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행 확인서를 보내야 하는 마감 직전에 그가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제 와서 계약서에 서명해도 됩니다.” » 제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오랜 처리 기간이 지난 후에 여기서 돈이 나올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회의에 가는 길에 갑자기 불안해진 저는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땅을 판 나머지 금액으로 아이 셋과 어른 둘이 미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Flatøy와 Knarvik 사이의 Hagelsundbrua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이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잠언 3:5-6). 그런데 회의에서 그가 남은 부지 전체도 사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거 용도로 변경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전히 LNF 지역인 나머지 부지까지 모두 파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대금을 세 차례로 나누어 받기로 했고, 예정된 날짜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하루 1,000크로네의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의 110만 크로네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알고 계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육체와 영의 기적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빌립보서 4:19).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진작 '예' 라고 대답하고 바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우리에게 돈이 없잖아.” »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의 불신앙이었습니다(마가복음 9:24).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학교 신청을 시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식으로 변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 성경 학교에 대해 말씀하실 때의 나의 불신앙

학교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우리는 Bergen에서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Noklus의 시스템 개발자로, 아내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우리는 Colorado Springs의 Charis Bible College를 향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Ikem Grigsby가 꿈에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내딸 Engeline의 VISA가 이륙 3일 전에야 나오는 바람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Iceland를 경유하여 미국 Denver로 비행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수하물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공항에서 짐이 가득 실린 카트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꽤 볼만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학교를 시작하기 전 Colorado Springs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신입생은 메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의 성취라는 말이 있

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Colorado Springs의 Charis Bible College는 Andrew Wommack의 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학생을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로마서 8:28).

2013년 말, 학교가 Woodland Park의 새 건물로 옮기기 직전이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되었고 마침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Colorado Springs에 있는 옛 건물에 있었습니다.

내년에 너는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 학교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것이 절대 성령님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었음을 2014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야간 과정에, 저는 주간 과정에 다녔고 우리는 교대로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시속 100킬로미터로 고속도로를 달릴 때 발생했던 한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나누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의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었던 위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hapter 27

Charis Bible College (2014)

2014년이 되었고, Charis Bible College는 Woodland Park에 새 건물을 열었으며 1학년 과정의 수업은 그곳의 메인 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은 나무로 된 지지 구조와 우리 머리 위로 높게 솟은 멋진 아치형 구조로 개방감이 느껴지는 설계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에 뛰어난데, 이곳은 방의 한 면이 해발 4302미터인 Pikes Peak를 향한 거대한 파노라마 창문으로 되어 있는 멋진 목조 구조물이었습니다. Woodland Park는 해발 2580미터에 위치해 있어 매우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해발 2300미터 지점에 살았는데, 그곳에 머무는 첫 몇 달 동안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소 숨이 가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하지만, 학습 내용을 주제별로 나눈 소책자를 나누어 주며, 한 주제가 끝나면 내용을 잘 습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간단한 테스트를 치룹니다. 정기적으로 컨퍼런스가 열리며, Charis Bible College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는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짓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와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이것은 Andrew Wommack이 나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성도들에게 치유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것입니다(야고보서 5:14-15).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셨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곳 성서 대학에서 매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는 여행과 계획,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활동이 있는 새로운 장소에서의 실질적인 모든 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한 가지 경고 신호는, 그녀가 저와 함께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 혹은 제가 본 치유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금방 조급해하거나 짜증을 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학년 과정을 보냈고, 가족들은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모임이 있는 Woodland Park의 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성경 교사 중 한 명인 Greg Mohr가 강의 도중 제 전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모든 강의는 녹음되었습니다. 저와 당시 아내가 겪고 있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녀는 반복적으로 저를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저의 사역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스스로를 신자라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eg Mohr는 제가 직접 표현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Greg Mohr는 그녀에게 말을 걸 때 제 전 아내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일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불신을 깨뜨려(spreng vantro) 버리실 것이며, 당신을 큰 호의와 축복, 그리고 재정에 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폭발시키듯 제거하실 것이며, 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에서도 당신을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의 사명과,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예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에 그분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 Greg Mohr가 제 아내에게 전한 말

몇 달 후 Marcus Wick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놓으신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이미 별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에베소서 5:31) 함께 기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 마태복음 18:3-9

어떤 사람이 자신의 판단력이나 인식,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심리적 조종을 가하는 것을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라고 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겨울 학기에 시작하여 가을에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 말이 되었을 때 저는 여름 계절 학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2014년 여름에

노르웨이로 휴가를 떠났고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제 내면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령님께서 학기 초에 이미 제가 내년에는 이곳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2학년 과정을 계속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원함에 따라 우리는 Levanger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1년 만에 그만두게 된 것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불과 23주 전에 네 명의 성도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 명은 그해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마지막 예배였고 그들은 막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참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당 뒤쪽으로 가려 할 때, 예언자였던 한 성도가 일어나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는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될 것이며, 제 사역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Charis 출신이었고 그의 프랑스인 아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말씀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그의 말은 나중에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고린도후서 13:1).

그다음으로 제게 말을 건 사람들은 Marcus와 Sharon Wick 부부였습니다. 그들도 저와 함께 Charis를 다녔는데, 당시 저는 우연히 그들의 집에서 열린 성서 대학 사람들의 가정 모임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그들과 가정 모임을 가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낯선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Marcus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가까운 가족들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내린 선택들에 대해 저를 비판해 왔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본 환상은 제가 맨 앞에서 있는 기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뒤에 달린 마차(vognene)들의 연결을 끊어 그 무게를 제거하시고, 제가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한 시즌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Sharon 또한 앞으로의 시간이 매우 힘들 것이며 모든 것이 완전히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큰 일은 추진력(momentum)을 쌓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확증을 주었습니다. Marcus는 또한 하나님의 복이 담긴 강물이 제 위로 흐르는 것을 본다고 말했는데(시편 46:4), 이 또한 나중에 입증되었습니다.

— 2014년 Marcus와 Sharon Wick

마지막 사람은 Jeffrey Hardwick이었고 그도 이전에 Charis를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피자 모임에 초대받았고 그도 초대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창조적인 기적(kreative

mirakler)»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요한복음 14:12). 저는 이전에 이에 대해 쓴 적이 없지만, 뼈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자라나거나 길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기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창의적인 성품을 가졌으며,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확증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제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자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가로막던 문제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점은 이해했지만(로마서 8:28), 하나님께서 실제로 3년 후에 저를 이혼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네 명의 믿는 자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그해에 저는 아시아 국가 출신인 Jangili를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사역과 형제다운 우정이 그해에 시작되었습니다.

Chapter 28

노르웨이로의 귀환 (2015)

우리는 2015년에 접어들었고, 저는 실업자 상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1년 더 머물려고 노력했다면 저는 실업 급여 권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NAV는 처음에 신청을 거절했고, 제가 그 결정에 항의한 후에야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탄탄한 교육 배경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제가 성경 학교(bibelskole)에 다녔다는 사실에 전혀 감명을 받지 않는 듯했고, 오히려 제가 평범한 비신자이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제 이력서가 기술적인 공백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의 '구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직장이 없는 좌절감 속에서 저는 그해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나누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두 아들이 더 생겼고, 아파트 안은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런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방들 안에서만 활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쥐 문제가 있어 벽 안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위생 측면에서는 다소 짜증스러웠지만 아이들에게는 흥미진진한 일이었고, 아이들은 공포와 즐거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쥐뿔이 놓인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직업이 없다는 것은 낮설고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2012년 Kvinneforum Nordhordland에서 예언된 내용이 아마도 제가 여기서 시작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글쓰기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해는 제가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로 선교 여행을 가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방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본 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 그것은 멋진 여행이었지만, 제가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도전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는 편인데, 호텔의 관리자 중 한 명이 기적을 목격하고 그의 아내가 치유받았을 때 당국과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종교 비자로 간 것이 아니었기에 말 그대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직원 두 명과 함께 호텔 옆 차고에 사는 한 여인과 그녀의 딸을 찾아갔습니다. 딸은 이전에 방언을 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딸은 갑자기 강력한 방언을 터뜨렸고 제 목의 털이 곤두설 정도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많은 일이 일어났고,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 빌립보서 2:12-18

제가 거듭난 지 이제 7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영의 거듭남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 안에서 있는 환상을 본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영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제가 본 것을 계속 의심해 왔습니다. 2015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 답해주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Trondheim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었고, 저는 다른 두 형제와 함께 걷다가 Trondheim Torg 광장에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형제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세 명의 젊은 여성과 한 명의 젊은 남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는 그들 주위를 돌았고, 그들을 향해 돌아섰을 때 제 오른팔과 어깨에 통증인지 묘한 느낌인지 모를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군가 오른팔이나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즉시 그 젊은 남성이 그렇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조금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왔으며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고, 성령으로부터 느끼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젊은 남자를 위해 기도해주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Azariah이며 이곳 Trondheim에 있는 국제 교회인 Betel의 청년부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령께서 가청적인(audibelt)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달걀 세 개를 가지고 (Trondheim) 시내로 가라!

— 2015년 성령께서 Azariah에게 하신 말씀

가청적이라는 것은 영 안에서가 아니라 귀로 직접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Azariah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왜 시내로 가야 하는지 몰랐기에 성령께서 두 번이나 메시지를 반복하신 후에야 실

제로 달걀 세 개를 챙겨 시내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돌아오는 길에 평소 다니던 길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그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저는 **«달걀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기뻐해 주었습니다. Levanger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나서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7년 만에 2008년 당시 알 속에 있던 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에 답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 시편 91:4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 마태복음 23:37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19). 그분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함께 일하시며, 우리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

언급했듯이 달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상징하며, 제가 성경에서 그것을 읽거나 주변에서 듣기 전부터 제 환상은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음을 압니다 (요한복음 3:3). 제 사역에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며, 제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물질적 번영에 찌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많은 이들이 조롱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들로 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올라야 함에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도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오랜 세월 끝에 제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수의 근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운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YES!!

저는 마침내 2015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구원받은 2008년에 진정으로 저를 자비로이 바라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실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경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

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종 되었던 집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 출애굽기 13:1-5

노르웨이 교회(Den Norske Kirke)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중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불행히도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40여 년 전 Møre 교구의 Morten Gravdal 주임 목사님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Morten 목사님은 Oslo의 신학 대학(Menighetsfakultetet) 학생 시절 방언 통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차의 환상이었습니다. 기차는 엄청난 속도로 풍경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선로에 기차가 다닌 지 오래되어 나무와 커다란 바위들이 선로 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관차 앞에는 커다란 플라우(plow, 배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플라우는 선로 위의 모든 장애물을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도 플라우는 선로를 깨끗이 청소했고, 기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플라우는 펼쳐진 '책' 이었습니다. 증기 기관차는 연기를 내뿜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차를 움직이는 힘이 기계의 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은 기차에 탄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속도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기차는 어느 역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플라우인 그 책은 분해되어 객차 중 하나에 실려 있었습니다. 기관사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별과 줄무늬가 있는 제복 모자를 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책을 조금 읽더니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거해버렸습니다. 책의 페이지 전체를 찢어내기도 했고, 플라우를 다시 제자리에 설치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기차가 가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기차가 서 있는 것에 만족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기차를 오르내렸습니다. 이 기차는 당연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전진할 것입니다.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전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성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40년 전에 받은 환상입니다. 그때 이 환상이 참되었다면, 지금은 더욱 참될 것입니다! 오늘날 중심이 되고 유행을 선도하는 신학자들과 주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고 붙여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더 이상 거룩한 책으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하게, 진노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차 앞에 다시 플라우를 장착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교회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회중의 눈앞에 놓여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노르웨이의 교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환상은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이었을까요? 노르웨이의 선로 위에 기차가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흥이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바위와 나무들이 선로 위에 떨어졌고 여러 번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렇게 상태가 나쁜 선로 위를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플라우를 다시 제자리에 설치합시다!

— Morten Gravdal이 받은 환상

그가 이 내용을 공유한 유튜브 영상의 제목은 «Han fikk et syn, om hvordan det ville gå med Den norske kirke (그는 노르웨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환상을 받았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자와 같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약속의 땅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홍해를 가로질러 가야만 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세례이며 (로마서 6:4) 옛 자아로부터의 씻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쉽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집트는 죽음, 즉 세상의 운명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은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감람나무에 접붙여집니다 (로마서 11:17).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Herren Sebaot)**를 **아바 아버지(Abba, Far)**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 로마서 8:12-17

이해에 나누고 싶은 또 다른 간증은 우리 자매 Anne-Gro Fjellingsdal이 Laberget에서 치유받은 일입니다. Levanger Vineyard의 모임이었는데, 모임 도중 제 목의 일부분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주변을 둘러보며 평소처럼 '이게 내 느낌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Anne-Gro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모임 때 느꼈던 묘한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Anne-Gro는 본인이 바로 그 부위에 수년 동안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녀는 통증이 있던 자리에 즉시 찌릿한 느낌을 받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진통제를 끊었고, 그 상태는 지금까지도 수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Anne-Gro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반드시 활용해야 할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9-10).

동시에 그해에 성령께서는 앞으로 나올 출판물들뿐만 아니라 제가 나의 책을 출간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파트 뒷부분, 세탁기와 그 위의 건조기 바로 옆에 서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필이면 열펌프가 내장된 Miele 건조기 옆이었죠.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너의 책을 내기 전에 성경을 먼저 출간하게 될 것이다!

— 2015년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저는 다시 항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출판 엔진을 구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지만, 그것을 성경을 출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엔진을 책의 부록으로 성경 구절을 참조하고 책 본문에 삽입하며 부록의 성경과 연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 단독 성경을 만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출판 엔진의 기술적인 부분과 제 작업 루틴이 성숙해짐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개별 성경은 물론 스터디 바이블, 대조 성경, King James Strongs 성경 및 성경 사전들을 출판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미친 듯이 진행되었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염두에 두셨던 그 책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회고록은 편지로 시작하여 책으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Levanger의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할 때, 학생들에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는 사

실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누구인지, 제 삶이 어떠한지 물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거부당하는 일은 노르웨이 겔모습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나누지 말라는 압박을 받으며, 기간제 교사로서는 해고당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이들을 지원하기를 주저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대면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11-2012년경 Frekhaug의 친애하는 형제 Øivind가 저에게 개인적인 성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사역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추가로 이 시기에 Levanger 중학교 근처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딸 중 한 명도 함께 있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조금 나누고 몸에 통증이나 기도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보며 오랫동안 등 부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지 물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는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서 트램펄린에서 뛰어보라고 했고, 돌아온 그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가 방금 경험한 것을 신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보통 저는 그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6)이라는 사실도 전하지만, 세상은 종종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를 비난해 온 아내의 싸늘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주셨으니, 그녀의 말은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로 들림 받으시기 전, 예수님의 명령과 권위 아래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이 아직 강림하시기 전이었고 제자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사역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

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 마가복음 1:15-28

심지어 자신의 가족 내에서조차 복음에 대한 이러한 저항을 발견하는 것이 예상 밖의 일입니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한 한 사람의 행동을 정죄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사람들이 험담하거나 무시할 때 체면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가족 내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마태복음 10:34-36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정죄와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선의를 가지고, 때로는 훈계조로 조언하려 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상황 속에서 침묵하며 홀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교인들이 등 뒤에서 험담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는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13).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매일 주어지는 축복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Chapter 29

년 아시아

이제 2016년이 되었고, 나는 동양을 향한 두 번째 여정에 올랐습니다. Jangili와 함께 목회자 그룹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우리 아들 중 하나를 임신 중이었기에 노르웨이를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옳다는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나는 가는 것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행도, 그 후의 출산도 모두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특별했던 점은, 누군가가 현지 당국에 뇌물을 주었거나 제보를 하여 Jangili가 집을 불법으로 지었다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이유는 모릅니다. 내가 떠난 직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가족들이 거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고 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일은 매우 잔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 목사님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점차 기력을 회복했고, 나중에 현지 당국은 그들의 실수(feilen)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Jangili와 그의 가족은 당국으로부터 새로운 건축 자재를 지원받았고, 우리 또한 그들이 예배실이 포함된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성경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도 정식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겪었던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을 방문하여 모든 성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음식의 증식(요한복음 6:11-13)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도 전, 식사가 시작될 때 성경 속 음식의 기적에 대해 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Jorn, 나는 이렇게 많은 치킨을 산 적이 없어요—당신이 보는 것은 내가 산 양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성경 공부 학생들을 위한 음식도 필요했는데, 원래 있어야 할 양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Levanger에 있는 제 사랑하는 이도 음식이 증식하는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후, 한 아시아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점도 덧붙여야겠습니다. 그는 내 아내와 장인, 장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한 말은, 내 아내가 자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녀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해 왔지만 그들에게 어떤 멍에가 메여 있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는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고 지난 몇 년간 그들 주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지만(에베소서 5:25), 아내가 가장 큰 적이 되어 그렇게

행동할 때는 불신자와 다름없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며, 이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녀에게 함부로 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혼 후 가족 관계에 있어 삶이 여전히 도전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하는 것은 모순이며, 사랑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하지 않습니다(야고보서 2:17). 이것은 내 전처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행함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하며, 적어도 이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면, 나는 여전히 구직 중이었고 미국 성경 학교 여행을 마치고 노르웨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나는 Levanger에 있는 Helseundersøkelsen Nord-Trøndelag (HUNT) 연구소의 시스템 개발자(Systemutvikler)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명단을 보았을 때 내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꽤 놀라운 결과였지만, 분명 모든 일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내 안의 무언가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내 직업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1년 반 후에 나를 프로젝트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에 성령님께서서는 내가 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출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자신이 없었기에 항의했지만, 결국 일은 그렇게 진행되었고 나는 점차 그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육아 휴직 중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업 급여를 중단했습니다. 나는 고대 성경과 히브리어 및 헬스어 사전을 포함한 성경 사전들을 디지털화할 출판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Kvinneforum Nordhordland의 가정 모임에 참석했을 때 받았던 2012년 5월의 예언처럼 함께 엮여(vevd sammen) 나갔습니다. 이 출판 엔진은 표준 디지털 텍스트북도 만들 수 있지만, 교육용 외에는 아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사전 자료들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들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수집했습니다. 내가 노르웨이어와 영어로 작성한 서문(forord)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총 40여 명의 번역가가 고용되었습니다. 2016년 6월 무렵, 놀랍게도 나는 Amazon에 30개 이상의 출판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판매량은 아주 미미했지만, 시작이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영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으며 잠에서 깬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 시편 22:11(22:12)

당시 나는 출판 엔진 작업으로 몸을 너무 혹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정세에 관한 인터넷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본 탓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당시에는 몸이 너무 지

쳐서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마태복음 6:33). 시편 22:11(22:12)은 어렸든 향후 2년 동안 닥쳐올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 나에게 핵심적인 구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문 앞에 와 있었고,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 힘든 시간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해 말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시편 63:6-7).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느라 새벽 5 6시쯤 잠들어서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아내도 당시에는 직장이 없었고 막내 아들 두 명을 위해 육아 휴직 중이었기에,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나는 약간 어린아이(barnslig) 같은 면이 있는데, 다섯 명의 아이를 둔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축복입니다.

그날 밤 나는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눕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아버지(Far)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내면이 형언할 수 없이 떨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As if I do not love to hear your voice. (마치 내가 네 목소리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 2016년 어느 날 밤 새벽 3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안에 충만한 능력과 힘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나는 그대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El Shaddai**께서 직접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충격이었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그리워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으며,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멈춰야 했습니다. 사역은 매우 흥미진진했지만, 나는 불안감을 내려놓아야 했고 잠을 줄여가며 밤샘 작업을 하여 몸을 망가뜨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El Shaddai**라는 표현을 처음 쓴 것을 눈치채셨나요? 이 글을 쓰면서 영 안에서 구했을 때, **El Shaddai**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찾아보니, 이 이름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Gud Jehovah)께서 Abram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자 성경에 Shaddai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Abram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El Shaddai**)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

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었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
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창세기 17:1-5

El Shaddai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El»은 «하나님»을 뜻하고 «Shaddai»는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Shin, Dalet, Yo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in**은 태워 없애는 것,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Dalet**은 문이며, 종종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구분이나 통로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Yod**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 가장 작으며, 유대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원자적인 것, 가장 작은 것, 폭발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상징합니다.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은 그 안에 Yo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의미로 볼 때 Shaddai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듯합니다. «영에서 세상으로 흐르는 창조의 능력, 창조와 파괴를 아우르는 것,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능함(allmektig)». 히브리어 알파벳의 상형 문자는 그 자체로 깊은 이해의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한계시록 22:13)라고 하셨을 때, 이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그것은 Alef와 Taf입니다. Alef는 연합, 강함, 지도자, 첫째를 상징합니다. **Taf**는 **옆으로 누운 십자가 모양**이며 표시, 기호, 징조 또는 인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시작과 끝이시며,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어 속에 감추어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느낀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오늘날까지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당신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증인 중 한 명입니다(요한일서 4:19). 우리가 비록 보이지 않는 점과 같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시편 8:4-5).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선한 일들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그 무렵 Levanger에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살던 한 젊은 여성의 눈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은 밤마다 괴로움을 겪는 듯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을 때 마치 그녀의 눈 속에서 영이나 악마가 나를 되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나는 그 순간 악마들이 때로는 자신들이 괴롭히는 사람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Mark 5:9). 나중에 길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나를 아는 체하거나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그녀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이 실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엄숙한 기억입니다(Ephesians 6:12).

Chapter 30

년 Levanger 기도 센터

때는 2017년, 저는 아시아에서 수년간 사역한 미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Håkon Fagervik이 설립한 Levanger의 기도 센터(Bønnesenteret)에 초빙 강사로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글을 쓰게 될 것이며(에베소서 2:10), 시계를 보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마태복음 6:34) 말했습니다. 또한 제게 필요하지 않은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제가 기뻐하지 않을, 제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순종하며 ”예”라고 답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야고보서 1:2-4). 이 일은 제 아내가 저와 별거하기 직전인 2017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Chapter 31

The Separation (2017)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는데, 나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연락을 하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다시는 함께할 수 없을 것이며 나와 별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Marcus Wick의 예언은 거의 잊힌 상태였다. 나는 배신감을 느꼈고, 내 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날 밤은 내가 겪은 최악의 밤 중 하나였으며, 밤새도록 엄청난 땀을 흘렸다 (Psalm 34:19). 내 몸은 그 밤을 온전히 버텨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마치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꿈을 주셨다.

배경에 L' Oréal이라는 단어가 적힌 전문직 여성 두 명이 보인다. 그들은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였고 전문적으로 스타일링되어 있었다. 그러더니 무대 세트가 돌아가듯 이미지 전체가 회전했다. 내 앞에 서구 출신의 놀라울 정도로 잘생긴 금발 남성이 나타났다.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했고, 그는 독특하고 인상적인 옷차림과 내가 본 적 없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한쪽은 짧게 깎고 다른 한쪽은 중간 길이였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 나는 이 나라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다!”

— 별거 다음 날 아침의 꿈

나는 그의 세련된 옷차림에 완전히 매료되었지만, 꿈이 끝나기 직전 그의 외면이 내면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심을 깨달았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깨닫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다.

별거는 건디기 힘들었지만, 그것은 예정된 일이었다 (Romans 8:28). 결혼, 이혼, 재혼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본 전체 연구는 우리의 자매 도서인 The Case for Marriage (junifye.publifye.pro/the-case-for-marriage)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께서 미리 주셨던 경고들이 더 분명하게 기억났다. 성령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곧 일어날 일이 나의 본성에는 어긋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진리를 말해주는 예언적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2 Corinthians 13:1).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기를 힘써야 하며 (1 Corinthians 12:7) 주저해서는 안 된

다. 나는 성도들에게 경고로써 이 말을 전한다. 교회의 일원이 되라, 교회를 거부하지 마라.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특정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혹은 떠나게 하시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 변화가 언제 오는지 분별하는 것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려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분별력은 매우 중요하다 (Hebrews 5:14). 내면의 울림이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분석적인 사고와 논리를 가진 나의 머리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했다 (Proverbs 3:5-6). 하나님의 자녀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믿음으로 걷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Romans 8:14). 때로는 나중에 확증이 오기도 하지만, 그조차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꿈 이야기로 돌아가서, 놀랍게도 잠에서 깼을 때 내 몸의 충격은 사라져 있었다 (Psalm 30:5).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외적인 모습에 거의 속을 뻘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 동안 아내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역을 거부해 왔고, 아이들 앞에서 여러 방식으로 남편으로서의 나를 비하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내가 화를 내고 논쟁적으로 변하는 것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집, 차, 음식,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좋아했다. 그녀는 분명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에게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수년간 나의 잘못과 단점들을 진단해 온 것은 나에게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인식하게 된 하나의 패턴이 있다: 자신의 단점과 간접적으로 직면하게 된 배우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180도 태도를 바꾸어 비난을 외부로 돌릴 수 있다 — 이제는 gaslighting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나는 수년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아는 척하지 않겠다. 나의 책임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기도에 실패했고,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일방통행이었다. 이는 그녀도 반복해서 인정한 사실이었다. 가까운 삼촌은 한 번은 방문 중에 아이들 앞에서 나에게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이것은 나의 약점 중 하나인 선택적 기억력 때문인데, 좋게 말해서 그렇다. 다른 이들은 이를 ADHD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은 큰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믿는다. 기술적 탁월함과 능력은 종종 성공의 외적 척도가 되지만, 나의 능력은 오히려 창의성, 결단력, 그리고 인내심에 가깝다. 나는 또한 본성이 꽤 어린아이 같은데, 이는 내 성격 유형의 특징이기도 하다.

2017년은 특별한 해였다. 별거 후에야 비로소 2012년 Nordhordland 여성 포럼에서 나에게 주어졌던 예언이 성경과 성경 사전들을 엮어내는(weaving together) 나의 사역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해 출판 작업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TruthBeTold Ministry라는 이름으로 Amazon, Google Play, Apple iTunes에 2,000종의 도서가 등록되었다. Amazon.com에서 직접 검색해 보길 바란다. Google Play는 2019년에 나의 자

료가 독창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출판물을 삭제했다. 거대 기업의 방식이 그러하다. 여러 개의 발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회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성도 중 한 명인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가 별거 수개월 전에 나에게 연락하여, 하나님께서 매일 전화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한 것을 언급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둘 다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바로 그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방금 꾸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완전히 침묵하더니, 잠시 후 자신의 집주인의 아버지가 베르겐(Bergen)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집주인이 이 형제가 막 임대를 마친 집의 보증금을 몰수하면서 아무런 증빙 서류도 제공하지 않았기에, 나는 이것을 그 꿈속 활짝 웃는 미소에 대한 확증으로 이해했다. 겉모습이 아무리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속의 그 남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겉으로는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이다 (2 Corinthians 11:14).

당시 막내딸 Engeline은 네 살 반이었다. 별거 몇 달 전, 아이는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그분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적 말씀을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 나에게 경고하셨지만, 별거가 일어나기 전에 나의 막내딸에게도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별거 후 내가 아이에게 누가 아빠를 집에서 쫓아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는 자신의 대답에 스스로 놀란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아니, 엄마야!»라고 정정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도 그 사실은 나를 수없이 기쁘게 했다.

8월에서 12월 사이의 다섯 달은 힘들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도 경험했다. 또한 꿈에서 전처 쪽의 가까운 가족 지인이 뱀처럼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모습을 보기도 했다. 꿈을 꿀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예언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내 주변의 그 누구도 2014년에 한 선지자가 이 별거에 대해 말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다행히도 2014년에 세 명의 성도가 말한 내용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

그해에 여러 일이 일어났고, 나는 Verdals Forbregdsmyra 90A에 있는 공유 주택으로 들어가 2018년 3월까지 방 한 칸을 빌려 살았다. 양육비 때문에 차를 팔아야 했고 결국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나는 복지 혜택을 받지 않을 만큼 고집이 섰지만, 별거 약 한 달 후 미국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성경 학교에서 만난 한 친구와 시간을 보냈다.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내가 이 여행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목격할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 사실 나는 전처의 권유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 비치에 있는 Vineyard를 방문하기 위해 미

국에 간 것이었다. 그곳에서 Shiloh Place Ministries가 주관하는 «The Power of a Father's Love»라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첫날 들어섰을 때, 나는 Knobby Nobles로부터 볼에 입맞춤을 받았고 기분 좋게 놀랐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볼에 입맞춤을 해주셨지만, 그런 입맞춤으로 환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잠자기 전에 의붓아버지와도 똑같이 했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한다. 그것이 그의 가족 전통이 아님은 분명했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 2 Corinthians 13:11-13

머틀 비치 컨퍼런스 기간 동안 두 가족을 만난 이야기도 해야겠다. 한 번은 해변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와 물결이 해안을 덮칠 때 앞뒤로 뛰어다니는 새들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키가 큰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내 곁에 섰다. 처음에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으며, 대화 도중 내가 영으로 그들이 고통받는 부위를 감지하자 몸의 여러 부분이 치유되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 하나는 치유하는 권능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쉽다거나 항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영 안에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은사를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믿음으로 걷는 것은 아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성도 중 한 명은 Frekhaug의 Elise 자매이다. 그녀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영감을 주는, 주님 안에서 복된 자매이다. 내가 만난 다른 가족도 예수님과 함께한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날 와서 나를 태워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또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노부부도 초대했다. 나는 조금 크게 기도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남성은 턱에서 무언가 툭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보통 나는 기도할 때 특정 부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온몸에 복을 빌어준다. 그는 감각이 없는 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 후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그가 교회에 도착하는 성도들을 서서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어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미국의 성도들은 또한 관대하며, 전도자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공기와 사랑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나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보답으로 나를 축복해 주기로 선택했다. 축복이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다.

나는 또한 컨퍼런스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즉시 죽음의 영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가 곧 죽을 것만 같았고 나는 그것에 위협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들이 내가 최근 몇 년간 영 안에서 경험한 일들이다.

이 미국 여행 중에 여러 일이 일어났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나의 친구는 당시 하나님과의 동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실제 상황을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했고, 이것은 그가 그 후에 꾸는 꿈이다.

꿈에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한 건물에 있었다. 그 건물 안에는 사악한 무언가가 있었다. 사악한 남자가 있었는데, 평범한 몸에 머리에는 큰 뿔이 돋아 있었다 (Revelation 13:1). 그는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였다. 어떤 이들은 탈출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꿈의 전부였다. 나는 이것을 녹음해 두었기에 이렇게 상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

— 2017년 그의 꿈

그는 결국 학교 내에서 불법인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그 성경 학교에서 제적(expelled)되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둠 속으로 물러났고 내가 제안한 것들을 거부했다.

때는 2017년이었고, 나는 Verdal의 Forbregdsmyra에 있는 공유 주택에서 다른 두 청년과 함께 방을 구했다. 직장을 구하지 않는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나의 현실이었다. 나는 교육을 받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격 학교를 이력서의 공백으로 보았기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신실함을 유지했고 (Isaiah 41:10), 할 일이 많았기에 그 반년 동안 출판 엔진을 구축하는 데 전념했다. 이 시점은 또한 이 형제가 나를 저버리고 우리의 우정을 오용한 때이기도 했는데, 이는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경고하신 일이었다.

그가 너를 저버리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 2017년 성령님의 말씀

나는 이미 이 형제에게 그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고했었다. 그는 이를 지속했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시작했다. 그는 내가 좋은 친구로 여겼던 가까운 형제였고, 나는 그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도왔었다. 그는 내가 그를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지키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 2017년, 한 형제가 말하기를

그해에 하나님께서는 튼튼하지만 낮은 밑동을 가진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꼭대기에는 신선한 초록 잎이 무성하고 둥근 수관이 있었다. 잎사귀 사이에는 산딸기와 딸기를 섞어놓은 듯한 신선한 붉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다. 열매가 많지는 않았고 나무 꼭대기에 골고루 퍼져 있었지만, 나는 그 열매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나무가 내가 작업하고 있는 개념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굵은 밑동은 깊은 뿌리를 시사했고, 이는 성장의 큰 잠재력을 나타냈기에 나에게 격려가 되었다. 나무의 밑동이 나무의 나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야 생각해보게 된다. 이것은 핵심 아이디어의 성숙도를 신호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이미지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격려이자 나의 작업에 대한 인정이라고 믿는다. 또한 그해에 나는 미국의 한 노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미국에 머물 때 함께 일했던 그곳의 성도들은 나를 기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에게 경고하고 그분의 일을 계속하라고 요청하라는 것을 계시하셨다.

이제 2017년 12월이다. 아이들이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나에게 남은 것은 주로 2인용 침대, 책상, 컴퓨터, 몇 가지 도구, 그리고 물론 옷뿐이었다. 나는 가족의 재산을 더 가져오고 싶지 않았고, 전처와 아이들이 갖도록 하는 편을 택했다. 차 한 대를 받았지만,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팔 수밖에 없었다. 전처는 내가 잠재력보다 적게 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틀린 것이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정부는 가상의 소득을 산정했다. 다행히 그들은 결국 나의 항소를 받아들였지만, 그때는 이미 차를 판 후였다. 전처는 자신의 행동을 순진함으로 변명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의도적이었음이 분명해졌다.

내가 많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달들이 또한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아이들로부터 10km 떨어진 Verdal의 공유 주택에서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마다 나는 찻잔을 들고 벽난로 옆에 앉아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다 (Psalm 46:10). 나는 이 시기에 공급하시는 작은 기적들을 보았다.

우리는 여전히 2017년에 머물러 있으며, 나는 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 나는 2주마다 열리는 교회 예배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 Vineyard 가정 모임에 참석한다. 이 시점에 출판 엔진은 성숙해졌고, 2018년까지 Amazon, Google Play, Apple에 2,000종 이상의 도서를 출판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해서 경험했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반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

2017년은 또한 Levanger에서 오신 Kari Jartveit를 만난 해이기도 했다. 그녀는 70대였고 훌륭한 기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Levanger의 Staup 보건 센터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녀의 딸 Hilde 자매와 함께 그곳으로 그녀를 방문했다. Kari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하면서도 말투가 직설적이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거둬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서 한 사

람 위에 희락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본 두 번째 경험이었다. Kari가 아무런 예고 없이 자기도 모르게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며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슬픔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희락의 기름을 주셨다 (Psalm 45:7).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녀 자신은 그 상황을 조금 씩씩스러워했지만, 나는 증인이었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조차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주님은 너무나 선택하셨다. 나는 그것이 내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희락의 기름부음을 즉시 깨달았다. 당시 나는 NOKLUS에서 일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Kari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는 목에 두른 스카프로 자신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딸 Hilde 자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은사가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머니와 딸은 함께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모두 함께 있을 때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까웠고 서로를 보완해 주는 단짝 같았다. Kari는 곧 우리 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슬퍼하고 있었다.

나중에 Kari는 음란물을 시청함으로써 배우자를 배신한 사람에게 닥친 결과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나 자신도 2012년 전처에게 고백하고 끊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다 (1 John 1:9). Kari는 피해자—그 결혼 생활의 아내—가 놀랍게도 영에 사로잡히게 된 경위를 말해주었다. 사건은 다음과 같았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았고, 남편은 자신이 음란물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아내가 Kari에게 가서 그녀 앞에 바닥에 쓰러졌다. Kari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즉시 영을 쫓아냈다. 피해자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쨌든 Kari는 그 모든 사건의 증인이었고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Kari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그녀의 광채를 기억한다. 그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나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내 상황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음식을 주었다. 또한 Kari는 어느 날 미용사였던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서서 뺨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말해준 것을 기억한다.

Kari: 당신 왜 그래요?! 남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실 한복판에 계시는 것이 보여.

— Kari Jartveit와 그녀의 남편

안타깝게도 Kari의 남편은 그녀보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만약 당시 그들의 교회가 활력이 있고 깨어 있었다면 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ari 또한 아내를 배신한 그 남자가 사전에 예언적 경고를 받았지만, 그 교회에서 거부하며 농담조로 그 경고가 무시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밖에서 서 있던 기억이 난다. 내 몸 주위에 묘한 온기가 느껴졌고 산들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좋았다. 평소의 나와는 다르게 가벼운 셔츠나 스웨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네 잎 클로버 다섯 개가 보였다. 숫자 5는 그날 남은 시간 내내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이제 2017년 12월이다. 어느 날 저녁 Levanger에서 약 10km 떨어진 Verdal의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슬픔과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느껴졌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문을 열고 닫으려 애써보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반전될 것이며 앞으로 2년의 성숙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셨다 (Jeremiah 29:11). 별거 후 정확히 다섯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클로버의 숫자와 같았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큰 격려를 받았고, 잠들기 전 내면에서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것은 내가 곧 새 직장을 얻고 약 3개월 후에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하나님께서 2년의 성숙 기간을 말씀하신 것은 특히 Publifye 회사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다.

Chapter 32

년 새로운 프로젝트 직무

2018년 1월, Levanger에 있는 HUNT Forskningsssenter의 Oddgeir Holmen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Oddgeir는 IT 부서의 중간 관리자였으며, 제가 지금까지 함께 일해본 상사 중 가장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2016년에 저 대신 채용되었던 시스템 개발자 Anders Smedegaard Pedersen이 이제 일을 그만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Oddgeir는 그의 업무를 이어받을 새로운 직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2019년 5월에 종료될 예정이었기에 Anders의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Oddgeir, Anders, 그리고 Per Bjarne Løvsletten과 미팅이 잡혔고, 저는 그해 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만든 출판 엔진(publikasjonsmotor)에 대한 성과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단일 디지털 출판물 내부에 수백만 개의 참조가 포함되어 있고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출판물을 막 완성했다는 제 이야기가 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가장 큰 출판물 중 하나는 참조가 1,000만 개에 달하고 디지털 페이지 수가 약 15만 페이지였으며, 저는 이미 2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출판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언급하는 것이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으며 모든 일이 이토록 잘 풀렸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즐거웠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2012년 5월 제가 Kvinneforum Nordhordland의 작은 여성 모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4:1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저는 Levanger의 HUNT Forskningsssenter에서의 생활을 무척 즐겼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는 2,000개의 표지 이미지를 제작할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포함된 복음서 성경 2,000권을 출판하기 위해서였는데, 각 권은 구절들이 병행으로 배치된 두세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이 그 언어들에 포함되었습니다. 출판 엔진이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했기에 제 쪽에서 할 일은 아주 적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2,000권 이상의 출판물을 냈다고 말하는 것이 생소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즐거우면서도 조금은 놀라운 일이었지요.

저는 이 출판물들을 통해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더 활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기를 바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듯했습니다.

2018년은 또한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여인을 알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녀를 미래의 아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이 2022년이 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34년 전부터 교회에서 알고는 있었

지만, 그녀의 한국어(노르웨이어) 실력이 매우 부족했기에 대화를 거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Levanger의 난민 수용소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그녀의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제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전에 제가 그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저를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는 등 강력한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와 나누는 말씀들에 대해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한국어 공부를 돕기 시작했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좋은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녀가 나의 미래의 아내임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성령님께서 그녀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꿈을 통해 그녀의 과거의 한 조각과, 아마도 20년 후에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사도행전 2:17). 저는 이전 결혼 생활이 슬픈 장(章)으로 끝났기에 새 아내를 맞이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혼자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예레미야 29:11). 저는 보통 하나님께서 밤에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는데, 미래의 아내의 인생에서 결정적이었던 한 순간을 짧은 장면으로 보여주셨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밤에 차 한 대가 달려와 길가에 주차하는 것을 꿈에서 보거나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자 숲가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 자동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저는 그들이 도둑이 아니라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꿈이었고, 평소처럼 제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는 목격자였습니다.

— 옷을 실은 자동차의 환상

저는 이 꿈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그저 우연이거나 낮에 본 무언가의 잔상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Leira Asylmottak의 공용 주방에 앉아 있고 미래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12살 때 어떻게 기도를 받았는지와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9살에서 12살 사이에 꽤 «난폭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Khomeini가 집권했을 때 일어난 모든 소요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그녀에게 너무 좌절한 나머지 차에 옷과 신발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줄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가로 신발과 옷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밤의 환상 중에 이것을 제게 보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이었던 과거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 미래의 아내의 난민 수용소 공용 주방에서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찌 그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 내면에서 솟구치는 질문

미래의 아내는 많은 일을 겪어 왔고, 저는 그녀가 제 아내가 될 것임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녀가 저를 여러 번 떠날 것임을 보여주셨는데, 말 그대로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육체적인 떠남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고가 저를 미리 대비시켜 주었기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녀가 나고 자란 곳의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받은 심각한 위협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신앙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녀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은 제 미래의 아내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들 하지만, 용서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동으로 일어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 애써도,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몸의 부위에서 추가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종종 몸의 치유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용서는 육체적 상처를 정화하는 것과 같아서,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 마태복음 6:14

미래의 아내는 15살에 강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직전 그녀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와 그녀의 자매를 데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 여인, 한 미용사에게로 갔습니다.

너는 두 아들을 낳을 것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먼 나라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너를 다시 삶으로 인도해 줄 한 남자를 만날 것인데, 그는 마치 가라앉으려 하지만 불들림을 받는 배와 같을 것이다. 네 인생은 처음 50년 동안은 힘들겠지만, 그 후에는 바뀔 것이다.

— 미래의 아내를 향한 예언적 말씀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몇 년 전인 2015년 Levanger의 Vineyard 교회 모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 성령님께서 제 미래의 아내에 대해 하신 말씀

저는 당시 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저는 2018년이 되어서야 성령님께서 그 '복 있는 자'로 저를 지목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가 미래의 아내에 대해 느끼는 기쁨이 단순히 저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서도 소중히 여겨야 할 중요한 일이며, 사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노력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해에는 많은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고, 저는 교회나 믿음 안의 가까운 친구들이 저를 의심하며 저를 여성 편력가로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도 그러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므로 결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법도를 어기고 그분의 몸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고린도전서 6:12-20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로 선택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와 미래의 아내가 몇 년 후에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임을 압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의 아내에게 예언을 했던 그 여인이 그녀의 자매에 대해서도 말했었고, 그녀가 했던 모든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처음 이 일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정신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의 40년의 기간에 걸쳐 말씀하신 것에는 네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확증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믿음 안의 한 자매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음에도 왜 이것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선하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으며,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기보다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항상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적이고 공유해서는 안 될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십니다(시편 23:4).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며, 우리의 헌신 어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미래의 아내와 대화했던 그 선지자는 세 번째 증인이며, 그녀는 35년 전에 동일한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미래의 아내 자신이며, 그녀는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을 스스로 보았고 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조금 비밀스럽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게는 다섯 자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제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간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아무도 제게 반박할 수 없도록 일부를 미리 나눕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제게 너무나 강렬했고, 그로 인해 제 자신의 구원마저 불확실하게 느껴졌기에 저는 성령님께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실 때, 특히 그것이 매우 개인적이고 가까운 일일 때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제 자신의 구원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일상에서 친자녀들과의 가까움을 잃은 것은 슬픔이었기에, 저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아내 본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별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내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노르웨이에서 11년 동안 망명 허가를 기다리다 보면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매우 선하셨습니다. 몇 년 전 Levanger의 기도 센터(Bønnesenteret)에서 안수 기도를 통해 그녀의 발이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10살 무렵부터 생리 때마다 겪어온 하복부 통증도 약 3년 전 중보 기도를 받은 후 사라졌습니다(야고보서 5:16). 그리고 그녀는 정신적으로도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여성이며, 그녀의 아들은 2022년 6월 13일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의사로 졸업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의 아내의 아들 중 한 명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 말하자면, 미래의 아내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격려를 받았는지 제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이 복도에서 턱수염을 기르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는 그들이 터키에 있을 때 그녀에게 보여진 환상이었는데, 당시 그 아들은 학교에 가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 시기 그들의 삶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격려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사후에야 저는 왜 성령님께서 그녀를 얻게 될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성령님의 말씀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데, 이는 몇 달 또는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제 전처는 제 잘못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지 제가 하는 일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훈계를 들은 것보다 사람들로 부터 제 처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저 또한 성령님께 훈계를 받았으며 그런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래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녀가 복음 전도자이며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녀는 매우 사교적이고 역량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Øygarden을 떠나기 약 일주일 전, 우리가 Sotra의 Sartor Senter에 있는 Tremorkirken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개월 뒤에 함께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날이 2022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날짜를 주신 첫 번째 사례로,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니, 정말 환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항상 모든 일이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저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큰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군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미래의 아내에 대해 나누고 싶었습니다.

2018년경 저와 미래의 아내가 친구가 된 초기 단계에, 성령님께서서는 그녀가 바닥으로 내려가야(må på gulvet) 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후 그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녀는 제 품 안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기도했고, 그녀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은 마치 갓난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일종의 정화 과정을 거쳤다고 믿을 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예고되었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알았으며,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아니라 영이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로마서 8:26).

덧붙여 말하자면, 그해에 성도들 중 두 명인 그녀의 아들과 형제 Ole Martin이 저를 찾아와 저를 여성 편력가(damejeger)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등 뒤에서 저와 제 미래의 아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말들을 지어냈고, 일어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그녀 역시 우리가 알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었고, 이 만남 또한 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결과물이며, 진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떨쳐내야 합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제 형제자매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비난할 때는 그 비난이 정당해야 하며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를 좋은 형제로 알고 있으며 그가 조금 선을 넘은 것은 이제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 미래의 아내는 실제로 그 후 6주 동안 저를 멀리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받은 것은 큰 충격이었고 그 기간에 저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제가 기뻐하며 간직하고 있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제 미래의 아내가 나중에 일을 그르칠 (rote det til) 것이라고 경고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그랬고, 다시 그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위로와 권면을 동시에 받았다고나 할까요. 그 시기에 재미있었던 점은 제가 매일 밤 9 10시간씩 잤다는 것과,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HUNT Forskningscenter에서의 업무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뇌가 밤새 충분히 휴식을 취한 덕분에 업무 성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이 잘 작동했고 Oddgeir가 제 업무에 매우 만족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발생했던 중대한 오류들을 찾아내어 수정했으며, 도구들을 개발하고 제게 요구된 것 이상의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Folkehelseinstituttet(노르웨이 공중보건원)을 위해 진행했던 프로젝트도 잘 완수했으며 나중에도 동일하게 해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갔고, HUNT에서 일하며 Golang을 배웠기에 업무 자체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Chapter 33

년 HUNT 연구 센터

2019년 중반, 저는 Levanger에 있는 HUNT Forskningsssenter에서 시스템 개발자로서의 프로젝트 직무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Asia로 여행을 떠나, 한 목사님과 함께 산속에 있는 목회자 그룹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동역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19).

Asia 국가 중 한 곳에 머무는 동안, 성령님께서서는 특정 상황들에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회중의 장로 중 한 명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부터 제 영 안에서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번은 한 그리스도인 의사가 병들어 바닥 바로 위의 들것에 완전히 마비된 채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서는 소변 냄새가 났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 상태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하여 그에게 그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는 제가 한 말이 옳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한 일을 인정했습니다 (야고보서 5:16).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 시점부터 치유가 시작되어 몇 달 후 그는 다시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이었고, 안타깝게도 마비에서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 초대받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8개월 후, 저는 조금 포기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Verdal 시에서 고용한 제3자 기관인 Proneo AS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평가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개발한 내용에 대한 전체 보고서와 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했습니다. 책임자는 놀란 듯 보였고, 그가 준비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제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Proneo AS는 그 아이디어에 찬성했고, 저는 NAV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잠언 16:3). 그 아이디어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디지털 책을 만들고 이를 직접 작성하거나 구매한 사전과 결합하여, 온라인 판매나 디지털 배포를 할 수 있게 돕는 새로운 제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제가 아는 한 이와 유사한 도구가 없습니다. 2012년 Kvinneforum Nordhordland에서 제가 그 누구도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여러 가지를 하나로 엮는 일(weaving things together)이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했던 때를 되돌아봅니다. 이는 이전의 출판 엔진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몇 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신청이 승인되었고, 이제 제 개인 홈 오피스에서 1년간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전에 2017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2년의

성숙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썼습니다 (전도서 3:1). 신청 과정을 시작했을 때 이미 2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NAV의 지원은 거의 Norway가 봉쇄(lockdown)되던 바로 그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새 도구 작업을 시작한 시점이 실업 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실업 급여에 휴가 수당까지 추가로 받게 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가 실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도입하는 동안 저는 1년 동안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개월간의 재택 근무에 대한 NAV의 지원 승인을 받기 직전, 저는 제 방 중 하나를 정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 예비 신부도 제 거실에 많은 종이상자가 쌓여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침실 중 하나를 홈 오피스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 방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 침대를 거실로 옮겼고, 동시에 거실과 다락방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쌓인 모든 종이상자를 보고 침실이 정리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하셨고, 동시에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맡는 것이 두렵지만, 나중에 아버지께서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6).

올해 저는 아버지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방문하셨을 때,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단호하게 거절하셨고 Philippines로 떠나셨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에게 대해 평안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1-2).

Chapter 34

연구 센터 (2020)

2020년 새해입니다. 저는 제품의 파일럿 버전을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풀리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NAV의 지원이 끊기고 직업도 돈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한 믿음의 자매님이 페이스북으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 부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감사를 표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겸손함에 놀랐고, 갑자기 성령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경제적 돌파구가 생길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분을 위해 하게 될 저의 사역에 관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상했음을 밝혀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꿈 두 가지 꿈을 통해 저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한 꿈에서 저는 Vasaskipet이 항구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침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꿈에서는 높고 긴 방 안을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안을 날아다니며 청얼거리는 슈퍼맨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간을 계획하려는 노력이 헛된 일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이곳에 세워졌으며, 그분이 저를 두신 곳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8-9). 그 사실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NAV의 지원이 끝나기 직전, 저는 Oddgeir에게 연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해에 저는 HUNT로부터 확실한 컨설팅 업무를 맡게 되었고, 제가 발표한 출판물의 판매 로열티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19).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연구 센터를 위해 만든 제품은 현재 그들의 Aldring i Trøndelag (AiT) 및 2년 동안 진행될 COVID 프로젝트에서 사용 중이며 원하는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합니다.

— Oddgeir Holmen의 피드백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의 삶과 배우자에게 내린 결정,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4:12). 제 전 아내와 아이들에 관해 다르게 생각했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혼은 그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해에 Levanger에 있는 난민 수용소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저의 미래의 아내는 새로운 수용소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동안 상황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셨기에 그녀는 이를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체적인 시기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36). 올해 초에 저는 서류를 준비하고 그녀가 이곳 노르웨이에서 행한 복음주의적 활동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Norsk Organisasjon for Asylsøkere (NOAS)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를 보증해 주는 다섯 쌍의 부부와 Sharon의 아들이 쓴 편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상 처리 기간은 최대 12개월, 보통 9개월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UNE로부터 아무런 답변 없이 1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Bjørn에 대해 느꼈던 불안감이 올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필리핀에 있을 때 사고로 총에 맞았습니다. 의사들은 총알이 갈비뼈에 맞아 몸 안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했으며 (시편 91:11), 그가 살아남은 것은 명백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기 전에 강에서 세례를 주고 싶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위해 느꼈던 불안이 실질적인 것이었으며, 그 시점까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묻는다면 그가 세례와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인정할 만큼 충분히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그는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을 노린 살인 미수 사건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경제적 부채를 탕감받으려는 시도였습니다.

Chapter 35

Publifye AS (2021)

2021년이 되었고, 저는 NAV의 지원을 받아온 그 해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Publifye AS를 설립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이 이 제품과 그 뒤에 담길 자원들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단체, 그리고 개인이 학습과 독서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로마서 11:29). 교사, 대학생, 학생들은 수백만 개의 연결 고리와 여러 배급사 및 기술적 솔루션을 갖춘 수천 권의 디지털 서적을 구축하며 쌓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이 내장된 자신만의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도입니다.

2014년 USA를 떠나기 전, 한 예언자가 저에게 제가 창의적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저에게 힘든 시간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잠언 16:3).

저의 아버지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올해 아버지가 방문하셨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침례를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수락하셨고, Levanger에 있는 강에서 저와 제 미래의 아내에 의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Maryam이라는 이름의 믿음의 자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모습이었고 나중에는 감옥 밖으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원 모자를 쓰고 흰 수염을 기르고 계셨으며, 예수님과 제가 아버지 뒤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Maryam은 제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선원이었다는 사실이나 흰 수염을 가졌다는 사실도 몰랐기에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Maryam은 또한 아버지가 침례를 받기 직전에 제게 메시지를 보내 아버님이 이번 주말에 침례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Maryam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 아버지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였으며(로마서 6:4), 그것으로 제게는 충분한 확증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내 Ragnhild 또한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소천하기 직전에 제가 Bergen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양원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보냈기에 그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고, 저는 그날 그 방에 천사들

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머리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예수님께 '예' 라고 답하고 거듭나는 것(요한복음 3:3)은 가능합니다. 저 또한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며 Ragnhild와 제 아버지를 그분의 안전한 손길 안에 붙들고 계심을 신뢰합니다(빌립보서 1: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기업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 에베소서 1:3-14

올해는 또한 저의 미래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황이 이제 좋아질 것이며 지평선에 빛이 비치고 있다는 환상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2022년 6월 Sotra에 있는 Tremorkirken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사들을 구하는 교회들도 일부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경건한 성도들을 보고 싶은 강한 갈망을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디모데후서 3:5

하나님의 능력 없이 어떻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고린도전서 4:20)?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겉

모습은 좋아 보일지라도 죽은 뒤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로마서 8:6). 구원받은 후, 저는 이전에 Den Norske Kirke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과 성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내게 안수함으로써 받는 복에 대한 진리를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로마서 10:9-10).

Chapter 36

앞으로의 길 (2022)

2022년 중반인 지금, 저는 아내 될 사람이 거주 허가를 받아 우리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Tingretten은 그녀의 사건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년 전쯤 우리 둘 다 이 행정 처리가 소위 «깨끗하지»(stueren) 못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Den Norske Stat으로부터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음에도 제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빌립보서 4:7). 그리고 꿈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행정 처리 시스템이 마치 하수관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실(asylum) 신청자들은 예전에 매달 2,000 크로네를 겨우 받았지만, 지금은 3,000 크로네로 올랐습니다. 이것으로 식비, 의류비, 교통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저는 한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서 전기 주전자를 쓰면 전기가 나가는 곳에 사는 아실 신청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며칠 동안 주 난방이 끊겨 옷을 아주 두껍게 껴입고 침실의 작은 난로 하나로 버텨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여러 명과 침실과 욕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받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팎에서 수년 동안 자원봉사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녀는 Den Norske Kirke, Levanger의 Vineyard에서 일했고,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도왔으며, 그곳과 Trondheim의 Sanitetsforeningen 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이며,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자원과 사생활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녀는 예배에 참석하며 전 세계, 특히 USA의 목사 부부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부부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Øygarden으로 오두막 여행을 갔을 때,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사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후 몇 분 동안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놀랐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타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간증을 듣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저는 머무는 동안 그 소년과 그의 여친구를 포함한 여러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 Øygarden Terminal에서 또 다른 청소년 그룹을 만났는데, 한 소녀의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치유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누군가 얇은 물에서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 한 소년이 올해 봄에 수영장에서 죽었

다가 몇 분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 일이라며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전날 밤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청소년들과 나눌 때 종종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제가 미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과 제게 주신 것들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 같아 매우 활동적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하며,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종종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마가복음 16:17-18). 비록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치유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가 그들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로마서 6:4)! 하지만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언제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제게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며 때때로 환희에 찬 기쁨을 경험하며, 머지않아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3일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금 한 무슬림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마가복음 10:18)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히브리서 12:29),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는 살 수 없다(출애굽기 33:20)는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제 눈 색깔이 «변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음 15분 동안 아마 세 번 정도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녀가 완전히 당황할 정도로 분명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기에 의아해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제 앞의 이 여성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를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제 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조금 드러내셨을 때 견딜 수 없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 그녀는 결코 무슬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사탄이 이 경험마저 그녀에게서 훔쳐가지 않는 한, 그녀가 일어난 일의 엄중함을 깨닫느냐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정될 것입니다.

— 하나님과의 만남

말과 행함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스승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눈으로 본 것은 나중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진리 위에 어둠을 드리우며 모두가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한복음 14:6).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 마가복음 16:15-16

하나님께서 제 아내 될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정확히 몇 달이 남았는지 보여주셨을 때, 그것은 그녀 앞의 화면에 나타난 또 다른 글자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어안이 병병해 했지만, 나중에 그녀가 제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께서 저와 제 아내 될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은 큰 축복입니다(시편 103:2).

저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6년인 지금, 저는 다섯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부활절을 포함하여 그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집을 마련할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 미래의 아내에 대한 망명 신청 사건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는 노르웨이 법에 따라 우리가 여전히 결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박국 2:3). 2022년 이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사역과 출판물 발행을 포함한 그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저는 가장 좋은 시절이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많지만, 이 회고록이 제가 무엇을 지지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두셨는지(예레미야 29:11)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Chapter 37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언젠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Jesus Christ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골로새서 1:16)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9).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일컫는 말이지만,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이 꿈에서 경험하는 바를 확인해 줍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꿈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리십니다(요한복음 10:30, 이사야 9:6). 이는 성경과 일치하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이 아니며,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거짓 종교를 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거나 죽였던 많은 이들이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시고 왜 자신의 백성을 박해하느냐고 물으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요한복음 1:1-3

대체 문학(alternative literature)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예수님을 '상승 마스터'(ascended master)나 단지 예언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통들은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히브리서 9:22, 로마서 5:9)이나 그분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무시됩니다. 만약 이 주제가 다뤄지더라도, 저자들은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참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피상적이고 순전히 상징적인 것으로 왜곡하려 시도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
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
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
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 요한복음 6:53-58

외계 존재와 UFO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설명들은 우리의 관심을 진리로부터 돌리기 위해 설계된 위장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거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초자연적인(supernatural) 현상의 상당 부분이 제가 목격한 하나님의 기적만큼이나 실제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것이 진리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서커스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음과 소란은 가득하지만, 그 목적은 당신을 생명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즐겁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죽는 날까지 즐거움만을 쫓곤 합니다(잠언 14:12). 어떤 면에서는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헤로인 중독처럼 다음 한 번의 투약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며, 사람의 생명을 메마르게 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내면에 생명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더러운 영들을 통해 기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고 있겠지만, 그것들의 실체를 분별할 은사를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 뒤에 있는 영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열매는 생명이 아닌 사망입니다(고린도후서 11:14). 표면적으로는 비범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텔레비전에서 최면에 걸린 사람들이나, 백마녀(white witches) 혹은 퇴마사(exorcists)들이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 요한일서 4:1-3

사람들은 밤중에 불빛으로 이끌리는 게나 곤충처럼 스스로 미혹되고 유혹당합니다. ”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마태복음 7:16). 비록 제가 2008년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제 내면의 일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고 그분께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그 일원이기도 했기에, 이 세상의 권세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숨기려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집중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며, 종종 결혼 밖의 성적 활동이 죄라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친밀한 장면을 담은 영화와 다른 매체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그들이 대답하되 ”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 대답하여 이르되 ”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 대답하되 ”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으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으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 요한복음 8:25-51

더러운 영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이며 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인간이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더러운 영들은 구도자들을 주술적인 세계에 얽매이게 하려 하며, 그 세계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디모데전서 4:1). 처음에는 모든 것이 유혹적이고 무해해 보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 학교에 다녔던 유능한 피아니스트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베드로후서 2:20-22). 그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한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성경 학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자제력을 완전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뒤바뀌었으며, 그들은 두 팔을 벌려 그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영적 해탈(nirvana)을 찾아 헤매다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서 겨울 산의 추위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마태복음 7:13). 여러 신자가 사전에 그에게 경고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급격히 돌아서고 직후에 목숨을 잃는 것을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두 사람 모두 고기를 끊고 극단적인 식단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점점 더 야위어 갔고, 마치 자신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초현실적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러운 영성에 의해 자신의 삶이 좌우되도록 허용합니다. 많은 백마녀(white witches)는 자신이 하는 일이 선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영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5:19-21).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해 개인적인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법에 대해 경고하셨지만(신명기 18:10-12), 오늘날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영화에서 마법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수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와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밤에 불빛으로 유인되는 나방처럼, 오컬트를 통해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어둠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빠져 갇히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불을 켜고 자야 할 정도로 평안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르노를 포함하여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 자신도 2012년경까지 포르노 중독으로 고생했으며, 오늘날 저는 별거벗음과 성(性)이 결혼 관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마태복음 5:28).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겁게 두신 것이었습니다. 즉, 제가 화면을 통해 다른 여성들과 간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모든 페이지에서 그분을 가리키는 이름들, 모형들, 예언들,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을 통해—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신다면, 저희의 자매서인 Jesus in Scripture (junifye.publifye.pro/jesus-in-scripture)를 참조하십시오.

너희도 정녕히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 에베소서 5:5-19

Chapter 38

죽음도 없고 영도 없는가?

오늘날 나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사도행전 3:19)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형 선고를 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Jesus의 피(히브리서 9:22)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Jesus를 영접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다면, 사후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몸으로 심었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다음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두 번 죽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0:14-15). Jesus께서는 직접 엄중한 말씀으로 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입니다(마태복음 25:41, 46).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성도들 중 일부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진리를 찾는 분이라면, 비록 모든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겁주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이끌기 위해 지어낸 허구가 아니며, 그런 식으로는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경험은 요청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 대해 진지하다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되돌리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Jesus의 피(요한일서 1:7)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요한복음 3:36).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Jesus는 하나님(골로새서 2:9)이시며 그분의 생명은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베드로전서 1:18-19). 다른 방법은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신명기 32:4),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Jesus입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가 깨끗이 씻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9).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요한복음 3:5, 디도서 3:5, 베드로전서 1:23), 이는 누구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든 못 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나에게 도전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나의 새로운 영을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으나 그 자체로 긍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옛 삶을 장사 지냅니다(로마서 6:4). 그리고 Jesus께서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신 것처럼, 우리도 물에서 일

어나 그분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Jesus께서 가지신 것과 같은 영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요한복음 14:16)라 불리며, Jesus는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열다섯 살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하셨지만, 실제로 내가 «그분을 만났»고 Jesus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까지는 18년이 더 걸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환상적이면서도 동시에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나의 간증을 들을 때 부디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죄의 결과로 어느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며, 우리 각자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다시 불어 넣어지도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에스겔 37:5-6). 하나님께서는 Adam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창세기 2:7), Adam이 죽었을 때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 죽은 것이었습니다. Ev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을 때 그들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됩니다(고린도후서 5:1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Alfa와 Omega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Jesus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David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 요한계시록 22:12-17

나는 Ananias가 시력을 갖 회복한 Paulus에게 했던 말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왜 주저합니까? 일어나 그(Jesus)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 사도행전 22:16

Chapter 39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람들은 세례를 두고 죽도록 다투다 — 비틀고, 누그러뜨리고, 둘러대어 없애 버린다. 공의회와 신조와 자기 자신의 지성에 호소하면서도, 정작 주님 자신의 음성 에 귀 기울이려 멈추는 일은 좀처럼 없다. 바울이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어떤 공의회도 아니다. 여기 그분의 말씀이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 서 친히 말씀하시게 하라.

39.1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예수님은 세례를 믿음에 곁들이는 선택적 장신구로 내어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명령하신다 — 그 나라의 문턱이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마가복음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한복음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혹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이 두 고대 사본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말씀의 서두가 불확실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레네우스」는 문제의 사본들이 필사되기 훨씬 전인 주후 180년경에 이미 이를 마가의 기록으로 인용하였으며, 압도적 다수의 사본 또한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다. 또한 이 구절이 무엇을 정죄하는지 유의하라. 심판의 이유는 결코 물의 결핍이 아니라 오직 불신, 곧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인 사도행전 2:38, 로마서 6:4, 베드로전서 3:21이 명하는 바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이 말씀이 온전한 무게를 지니게 하라.

39.2 모든 의를 이루심

그분께는 씻어 내야 할 죄가 없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셨다 — 아무 의무도 없으셨건만 —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내시려고.

마태복음 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39.3 더 깊은 세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세례라 부르셨다. 물 너머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다 —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그 동일한 죽음 속으로 내려가,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2: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가복음 10:38-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사도행전 1: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것을 명령하셨고, 친히 그 길을 걸으셨으며, 물을 무덤인 동시에 모태로 삼으셨다 —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으로. 논쟁은 끝났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질문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Chapter 40

Adult Baptism

40.1 세례는 결혼식이다

낮선 이와 은밀하게 결혼하는 이는 없습니다. 증인들 앞에 서서 서약을 하고, 예복을 입고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 남편에게 중매되었으며(고린도후서 11:2), 그분은 곧 신랑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그분을 신랑이라 일컬었으며(요한복음 3:29),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마태복음 9:15). 세례의 물은 믿는 자가 ”예” 라고 고백하는 혼인 제단입니다.

믿음이 마음의 동의라면, 세례는 몸의 서약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둘을 한 호흡으로 묶으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마가복음 16:16). 먼저 믿어야 하며, 그럴 때 물은 믿음이 이미 소유한 바를 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 3:27). 세례는 혼인 예복입니다. 물을 건너뛰는 행위는 복음을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랑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작 결혼식에는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해야 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 자체가 사람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죄를 씻어냅니다.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베드로전서 3:21)으로, 이는 서약이지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세례 없이 영접받았으나, 이는 신랑께서 그의 곁에 얼굴을 마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규칙을 확인시켜 주는 예외일 뿐입니다. 그 외 모든 이들에게는 이 순서가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로마서 6:4),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요한계시록 19:7). 인간의 전통을 따져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신랑께서 세우신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신약성경의 헬라어 문법,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예표, 그리고 컴퓨터가 검색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3,400년 동안 인간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었던 토라(Torah) 속에 숨겨진 문자 배열에서 나온 증거입니다. 3천 년에 걸쳐 세 명의 독립적인 증인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의식이 있는 자를 위한 것이며, 필수적인 것이고, 성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글을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든다면, 계속 읽어 보십시오. 증거

는 검증 가능합니다. 성경 구절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토라의 문자 속에 숨겨진 말씀들은 바로 이 세대를 기다려 왔습니다.

유아 침례는 수백 년 동안 노르웨이의 두드러진 전통이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직후 교회에서 자녀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과거 국교였던 노르웨이 교회는 이 관습을 가장 앞장서서 시행해 왔으며, 가톨릭과 감리교회 또한 유아 침례를 행합니다. 의식 중에 아이는 대대로 물려받은 흰색 세례복을 입고 침례반으로 안겨 나옵니다. 사제는 아이의 머리에 세 번 물을 붓으며 말합니다. ”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네게 세례를 주노라 ” (마태복음 28:19). 가족들은 또한 아이의 기독교적 양육을 도울 대부모를 선정합니다. 유아 침례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침례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많은 노르웨이인에게 유아 침례는 종교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족 전통이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이 모이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 침례를 대신 행하는 침례교회나 오순절 교회와 같은 기독교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아이러니는 놀랍습니다. 사제가 인용하는 바로 그 구절에서 유일한 명령형은 마태복음 28:19(G3100) — 즉 ” 제자를 삼으라 ” 입니다. 침례를 뜻하는 바티존테스(G907)는 그 제자 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하는 현재 분사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침례를 받는 자가 이미 제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꺼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기억합니다(마태복음 3:5-6).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영적 정결 의식인 «미크베 מִקְוֶה^{H4723}»에 오랫동안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미크베 자체는 브라운-드라이버-브릭스(Brown-Driver-Briggs) 사전이 밝히는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 물의 모임 ” 과 ” 소망 ” 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7:13에서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미크베(소망)시여.» ” 소망 ” 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정결 목욕 의식과 같은 단어입니다. 정결의 물과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올바른 미크베를 위해서는 물의 일부가 ” 하늘 ” 에서 와야 했는데, 이는 빗물로부터 직접 수조로 흘러 들어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수니라»(요한복음 4:14). 유대인들에게 «미크베»는 무엇보다도 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디도서 3:5; 사도행전 22:16).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정결의 수단으로 미크베를 행해 왔습니다. 이는 월경 후, 시체를 만진 후, 또는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행해졌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 방법을 반박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세 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란티조 ῥαντίζω^{G4472}, 붓는 것을 의미하는 케오, 그리고 완전히 잠그거나 덮는 것을 의미하는 바티조 βαπτίζω^{G907}입니다. 성령께서는

일관되게 잠그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짧게 담그는 것을 뜻하는 밥토와 달리, 밥티조 βαπτίζω^{G907}는 지속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미크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정결의 예언적 그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바다를 향해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이를 봅니다. 둘 다 앞으로 올 구원에 이르는 침례의 그림이었습니다(베드로전서 3:21). 침례는 옛 사람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골로새서 2:12). 만약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한복음 14:6), 그분 친히 침례를 받으셨다면(마태복음 3:13-17), 하물며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베푸셨는데(요한복음 3:22), 우리가 왜 그분의 본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패턴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분은 옛 언약의 유아 표징들 — 팔 일 만에 할례를 받고(누가복음 2:21), 성전에서 드러진 것(누가복음 2:22) — 을 받으셨으나, 아기로서 침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30년을 기다리셨고, 침례가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의 행위임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요단강으로 내려가셨습니다(마태복음 3:13-17).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요한복음 3:7)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한밤중의 대화에서 새로운 교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전체 예언적-언약적 기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자신이 이미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 던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그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에스겔 36:25-27). 그 다음 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숨을 쉬고 살아 일어납니다(에스겔 37).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로 살게 하려» 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같은 소망으로 두었고(신명기 30:6), 예레미야는 새 언약 안에 기록된 법으로(31:33),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0)라는 부르짖음으로 보았습니다. 물, 성령, 새 마음, 생명 — 요한복음 3:5의 정확한 구성 요소들은 수 세기 동안 히브리어 성경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페이지 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동시대인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인 쿨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물처럼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씻어 주시고, 스올에서 영원한 높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구했습니다(공동체 규율과 감사 찬송). **그분의 율법은 그것을 절반쯤 시행했습니다.** 언약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이전의 존재를 뒤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옛 혈연은 무효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개종자의 침례는 이미 그분 당대나 그 근처의 힐렐과 샴마이 학파에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미슈나 페사힘 8:8).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막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물속으로 내려오게 하며 경고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

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3:9). 첫 번째 탄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밖에서 사람에게 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건너는 문턱이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너희'는 복수형으로, 방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 그리고 같은 숨결로 그분은 그 방법을 지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3:14-15). 이방인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 지금, 성령으로, 아들을 통하여, 눈을 뜨고 물속으로. 이것이 바로 그 표징이 대리인을 통한 유아의 것이 결코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개종자는 미크베를 선택했고, 요한의 청중들은 스스로 강독을 걸어 내려갔으며,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으나 오직 의지가 부족했던 니고데모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요한복음 7:50; 19:39). 침례는 이미 위로부터 난 자가 건너는 의식적인 통로입니다.

우리는 또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인들을 기억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홍해의 정결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또한 악함이 더 이상 지속되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노아의 홍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미크베는 새 생명의 상징이자 동시에 옛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는 마치 성찬과 같아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구원에 이르거나 심판에 이르도록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고린도전서 11:27-29). 이 침례 — 이 정결 — 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 사항입니다(요한복음 3:5). 그러나 물이 믿음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표현합니다. 침례는 이미 믿고 회개한 마음의 정해진 대답이며(베드로전서 3:21), 그리스도의 피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에베소서 2:8-9).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소홀히 여겨졌다는 사실이 진리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주장이 강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로마서 6:1-11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다를 건너기를 원치 않았던 자들은 옛 세상에서 죽었을 것이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11-12 ·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저의 경험들은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유아 침례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아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죽더라도 하나님에 의해 정결케 되므로 아이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 들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경에 일어난 일이며, 성령님께서 저에게 세정(ablution)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이 일은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일어났는데, 여기에는 광범위한 정결 의식이 포함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따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김을 받고, 특정한 제사장 의복을 입고,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거룩하게 되어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정결케 되고 준비되었을 때, 그는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욥 키푸르)에 언약궤 앞에서 의식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성소(코데쉬 하코다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독특하게 나타나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 세정(Ablution)은 정결케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봅니다(마가복음 10:14). 그리고 헬라어는 영어가 숨기고 있는 구분을 합니다. 마태복음 19:13-14에서 예수님께서 ” 어린아이들 ” 을 위해 사용하신 단어는 파이디온 $\pi α ι δ ί ο ν$ ^{G3813} — 즉 걷고 올 수 있을 만큼 자란 아이들입니다. 누가복음 18:15은 다른 단어인 브레포스 $β ρ έ φ ο ς$ ^{G1025}를 사용하는데, 이는 태어나 갓난아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사전 도구를 사용하여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검색해 보면, 바티조 $β α π τ ί ζ ω$ ^{G907}는 믿음, 회개, 고백과 관련된 단어들과 아홉 번 나란히 등장합니다. 유아나 아이를 뜻하는 단어와는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어 어원, 유월절 연결, 헬라어 형태론을 포함한 이 증거에 대한 전체 연구는 우리의 동반 도서인 Through the Waters(junifye.publifye.pro/through-the-wat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아가 아닌 성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사도행전 2:38; 8:36-38; 16:33). 저의 미래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불을 품고 있기에 저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성인 침례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확신했지만, 그녀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이것을 들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확증하듯이, 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유아 침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마가복음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종종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고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옥, 즉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던져지는 것보다 신체 일부를 잃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9:43-48). 그분은 불꽃 속에서 고통받으며 자비를 구하는 부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6:23-24). 이것들은 은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문자 속에 숨겨진 것

그러나 증거는 성경 표면에 나타난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세의 첫 다섯 권의 책인 토라는 3,400년 동안 오류 없이 필사된 304,805개의 히브리어 문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컴퓨터가 등간격(등간격 문자 배열, ELS)으로 암호화된 단어를 찾기 위해 이 문자들을 검색했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순절을 향한 카운트다운인 50일째, 49 간격에서 침례 신학과 관련된 11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각각 토라 전체에서 한 번 또는 매우 드물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그 단어를 정의하는 구절 위에 떨어집니다. **테빌라**(טבילה, 침수)는 «물로 몸을 씻을» 것을 명령하는 구절(레위기 15:7)에 떨어집니다. **테슈바**(תשובה, 회개)는 주인과 함께 남기를 선택하는 종의 법(출애굽기 21:5-6)에 떨어집니다. **마시아흐**(משיח, 메시아)는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음이니라»(출애굽기 23:21)에 떨어집니다. **예슈아**(ישוע, 구원)는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레위기 8:15)에 떨어집니다. 49 간격의 '부엌'은 요리에 관한 구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타'는 낙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조군들은 무작위의 관련 없는 텍스트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침례 단어는 자신의 구절에 떨어집니다.

토라 텍스트가 원래의 두루마리인 원통형으로 감길 때, 11개의 단어는 회개 옆의 구원 옆의 유월절 어린양; 침수 옆의 믿음; 그리고 두루마리를 감싸며 침수와 맞닿아 있는 메시아를 설교하는 쌍으로 군집합니다. 마시아흐(358)와 테빌라(56)의 게마트리아 합은 414인데, 이는 유대 전통에 따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 믿음으로 처음 홍해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 **나흐손**(נחשון)의 정확한 게마트리아입니다.

우리는 또한 토라에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아»(요한복음 3:5) 한다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토라 전체에서 1,092 간격으로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흐손 벤 암미나답**의 제물인 민수기 7:17에서 시작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물속으로 처음 들어간 사람의 이름을 통과하며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교차하는 표면의 단어들은 복음처럼 읽힙니다. 나흐손(믿음), 뿌리는 대접(적용된 피), 모세(율법), 속죄, 그리고 덮음 —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 3:27).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토라의 숨겨진 문자에서 **에무나**(אמונה, 믿음)와 **테빌라**(טבילה, 침수)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가장 가까운 쌍이 **신명기 21:23** —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에서 **두 문자 간격**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13에서 십자가에 대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믿음과 침수가 십자가 처형 구절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토라는 십자가가 세워지기 1,400년 전에 구원이 구매된 바로 그 장소에 구원의 두 가지 요건을 나란히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간격에서 유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49 간격의 **티노크**(유아)는 사형 선고(출애굽기 21:15)에 떨어집니다. 34 간격의 **티노크**는 **완전히 부재**합니다. 토라는 침례 간격에 믿음, 회개, 침수, 메시아, 구원을 암호화합니다. 유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어떤 간격에서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 단어들이 이 구절들에 떨어지도록 304,805개의 문자를 배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약 조건들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정렬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 검증, 대조 단어, 그리고 모든 발견이 검증된

전체 분석은 동반 도서 [Through the Waters\(junifye.publifye.pro/through-the-waters\)](http://Through the Waters(junifye.publifye.pro/through-the-wat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아내에게 침례에 관해 도전하며 말했습니다. «침례가 성인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실 수 있는지 여쭙어봐.»

그 직후 하나님께서 그녀를 깨우셨을 때, 그분은 그녀에게 오래된 성경 — 그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이었을 것 — 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에 관한 이 메시지를 그녀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유아 침례는 축복이지만, 성인 침례는 필수이다!»**

—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미래의 아내를 깨우시다

누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 침례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은 이를 보여주며 성령님께서 친히 확증하셨습니다. 저의 경험은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성도 중 한 명이 침례를 받고 직후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사도행전 2:4; 10:44-46). 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신자들과 대화했지만, 제가 미래의 아내에게 하나님께 답을 구하라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유아 침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통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마가복음 7:8).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입니다(마가복음 16:17). 다른 이들은 인간의 말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를 변명하려 하거나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피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요한복음 14:12). 우리는 능력이 없는 고상한 말로 말해야 한다고 읽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린 베드로 또한 단순한 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먼저 구하는 제자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은혜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갈라디아서 3:27; 고린도전서 12:4-11).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지근할 여지는 없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반론이 건장한 사람들을 예배당 좌석에 머물게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눅셈과 강도

그 반론은 예측 가능한 방패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침례 없이 구원받았으니, 나도 면제된다. 이것은 신학을 가장한 범주 오류입니다. 그 강도는 십자가 위

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물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구원은 왕국의 규칙이 아니라 예외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필수적인 행위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구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14-15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패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아(לרא — 바라보다), 하이(חי — 살다). 민수기 21장에서 sārāp סָרָאֵפְ ^{H8314}(불뱀)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nēs נֶסֶס ^{H5251}(표준, 깃발)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강도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나무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들린 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물로 내려갈 수 없었지만, 마음을 왕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아버지가 요구하신 것을 정확히 행했습니다.

당신은 그 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강독에 서 있고, 물은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강도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전 나아만의 교만입니다(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더 웅장한 몸짓, 더 품위 있는 길을 원했지만, 그가 처음에 경멸했던 진흙투성이의 순종 속에서만 치유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마태복음 10:32). 침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났다는 공개적이고 물리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공개적인 증언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최소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건장한 사람에게 물에 이르지 못하고 멈추는 돌이킴은 진영으로부터 머리를 숨긴 돌이킴입니다. 당신의 건조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 언약의 물을 거부하면서 뱀장대의 생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은 기다리고 있고, 명령은 분명합니다.

세례와 성령

그렇다면 말을 할 수 있기 전에 침례반으로 안겨 온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온화하고 선의로 가득 찬 관습이 많은 이들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바닥으로부터 조용히 휩쓸어 갔습니다. 성령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의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에 주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갈라디아서 3:2).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침례는 믿는 마음을 따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사도행전 2:38) —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 물, 그다음 선물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재침례를 통해 순서가 바로잡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침례만을 받았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니다(사도행전 19:2-5). 믿음 이전에 받은 씻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침례를 요구했습니다.

중간태 — 의지의 문법 — 는 주체가 자신에게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고린도전서 10:2), 그러나 헬라어 예배티산토(G907)는 중간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사도행전 22:16 — 바티사이, G907, 그리고 아폴루사이, G628, 둘 다 중간태 명령형)는 말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7에서 ” 세례를 받은 ” 은 수동태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는 중간태입니다. 에네두사스테(G1746), 당신이 스스로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아기는 중간태로 어떤 행위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사도행전 2:38-39에서 이를 표시합니다. 무리를 향한 부름 — «너희가 회개하여»(메타노에사테, G3340) — 은 복수형으로 서 있고, 침례는 단수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각각 세례를 받고»(바티스테토, G907).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은 브레포스(유아)가 아니라 테크논 τέκνον^{G5043}(자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 프로스칼레오(G4341) — 에게 미치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세 개의 본문이 유아 침례를 위해 사용되지만, 각각을 전체로 읽으면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정들** —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사도행전 16:15), «그와 그 온 가족이»(사도행전 16:33), «스데바나 집 사람들»(고린도전서 1:16) — 은 유아들이 집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간수의 집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사도행전 16:32-34)고 했습니다. 그 집은 듣고 믿었으며, 그다음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평행은 그다음으로 제시되지만, 바울은 그것을 유아기가 아니라 믿음에 연결합니다.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의 믿음을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로새서 2:12). 그리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마태복음 19:14)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 그들을 안으시는 것이지, 침례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안수하고 기도하셨지, 물을 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없는 유아에게 행해지는 의식이 성령을 전달한다고 가르쳐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대신하여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그분께서 꾸짖으신 바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되»(마가복음 7:13). 역사는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 침례에 대한 가장 이른 명확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으며 — 200년경 테르툴리아누스의 논문 De Baptismo에서 — 그것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00년대 중반 오리게네스가 이 관습을 옹호했을 때, 그는 보여줄 성경 구절이 없는 ” 사도적 전통 ” 으로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256년)는 시기 — 팔일을 기

다릴 것인가 — 만 논쟁했을 뿐, 허용 여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관습이 뿌리내렸을 때도, 그것이 사도적임을 성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위에 덧씌워진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방어선을 들으십시오. 물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베드로전서 3:21) — 그리고 침례를 전혀 받지 않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아직 장사되지 않은 참된 신자도 그것으로 인해 배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따릅니다. 당신이 믿을 수 있기 전에 행해진 의식에 당신의 확신을 두지 마십시오. 성령님 자신의 내적 증언에 두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순종하십시오. 스스로 물속으로 내려와, 아기가 할 수 없었던 대답을 당신 자신의 양심으로 하십시오.

피의 신랑

언약의 표징이 결코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는 토라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증인은 밤의 숙소인 출애굽기 4:24-26에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된 구원자인 성인 남자를 말입니다. 이유는 언약의 표징이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져와 그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 동사는 **וַתִּכְרַת** 바티크로트이며, 카라트 **כָּרַת**^{H3772}에서 왔는데, 이는 ” 언약을 맺다 ”에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창세기 15:18) — 피를 그의 발에 대고 말합니다. ”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 (**חַתָּן דְּמַיִם** 카탄 다뎀). 죽음이 물러갑니다. 언약의 피가 심판을 돌이켰습니다.

단어들조차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손을 뻗은 동사 — **וַתִּכְרַת** 바티크로트, 어근 **כָּרַת**^{H3772} — 는 하나의 단어에 언약의 양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 언약을 맺다 ” 와 ” 끊어지다 ” 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들어가는 것은 안으로 베어지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이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치는 이름 — **חַתָּן**^{H2860}, ” 신랑 ” — 은 그 자체로 언약 단어입니다. 사전은 ” 할례받은 아이, 일종의 종교적 혼인 ” 이라는 별도의 의미를 어근 ” 결혼으로 친족 관계를 맺다 ” 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시합니다(H2859). 할례는 피의 혼인 표징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부르는 이유이며(요한복음 3:29; 에베소서 5:25-32; 요한계시록 19:7), 우리는 물을 통해 그분과 약혼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죽음의 위협에 처했고, 누가 칼을 받았는지 주목하십시오. 심판은 성인에게 떨어졌습니다. 언약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모세에게 말입니다. 표징은 다른 이의 손에 의해 아이에게 놓였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육체의 표징, 아직 대답할 수 없는 자에게 놓인 것.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표징이 와야 했던 이유입니다. 새 언약은 부모의 손에 의해 잠자는 유아에게 놓일 수 없습니다. 그것의 내면은 ” 손으로 하지 아니한 ” 마음의 할례이며(골로새서 2:11; 로마서

2:29),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의 외면은 침례이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베드로전서 3:21)입니다. 헬라어로 에페로테마 — 당신 자신의 맹세된 '예' 입니다. 둘 다 개인적입니다. 부모도, 사제도, 국가도 당신을 대신하여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표징이었고(창세기 17:11) 침례가 서약으로 들어가는 것인 같은 언약 — 헬라어로 디아테케 — 입니다. 하나의 인, 같은 피 안에서, 바울이 두 표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골로새서 2:11-12). 그러나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므로, 인은 출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대리인을 통해 운반된 옛 언약의 마지막 횃불이며, 그것이 지명하는 피의 신랑은 그 자신을 넘어 참된 신랑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피가 언약을 인칩니다. ”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28). 헬라어로 디아테케는 ” 유언” 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입니다(히브리서 9:16-18). 언약은 피로 살며, 침례에서 우리는 그 죽음 속으로 내려갑니다(로마서 6:3-4).

아무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유아 침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할례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는 정확히 ”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골로새서 2:11; 로마서 2:29). 그것은 거듭남 시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도 타인을 대신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두 표징 사이의 유사점은 언약과 피입니다. 차이점은 문입니다. 옛 언약은 육체의 혈통을 통해 흘렸으므로 육체의 표징이 이미 그 안에 태어난 유아에게 따랐습니다. 새 언약은 육체가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 흐릅니다. ”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예레미야 31:34) — 그리고 스스로 그분을 알지 못하는 구성원은 없습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며, 개인적인 '예' 는 개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밖에서 누구에게 놓일 수 없습니다. 유아에게 침례를 주는 것은 옛 언약의 문을 새 언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은 자는 ” 끊어지리니...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창세기 17:14 — נִכְרֶתָהּ 니크레타, ” 끊어지다” , 다시 카라트). 예수님은 물에 대해 베드로에게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8). 그리고 침례를 에페로테마, 즉 맹세된 '예' 라고 부르는 바로 그 베드로가(베드로전서 3:21) 새 언약의 카레트를 명백한 말로 설교합니다. ”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사도행전 3:23; 헬라어 엑솔로스레우오). 들어가는 것은 생명입니다. 밖에 머무는 것은 벗어날 수 있었던 바로 그 심판 아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자들이 여전히 움츠러드는 필수 사항입니다. 물가에 서서 내려가지 않는 자들 말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행**하게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할 만큼 가깝고, 모임에 참석할 만큼 존재하지만, 결코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17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동사는 콜

라오 $\kappa ο λ λ ά ω$ ^{G2853} — 함께 붙이거나 접합하다입니다. 결과는 헨 프뉴마 — 한 영입
 니다. 평행선은 결코 닿지 않습니다. 둘은 합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정확히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하
 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히나 판테스 헨 오신 (요한복음 17:21). **하나의
 반대는 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반대는 평행입니다.** 평행하게 걷는 사람은 많은 구
 절을 인용할지 모르나 그 말들은 탈구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열렬히 섬
 길지 모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감지합니다. 유아 침례와 국
 가 증명서를 증거로 주장할지 모르나 그의 손을 통해 물속으로 거듭난 성인 제자
 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판단하
 지 마십시오. 인은 서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19)
 — 에그노 쿠리오스 투스 온타스 아우투, 우리가 앞서 고려했던 언약 동사 기노스
 코 $γινώσκω$ ^{G1097}와 함께.

요한계시록 3:14-22 ·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
 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
 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
 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
 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
 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종종 미지근함으로 반응하는 요한복음 3:16을 떠
 올립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관찰하시고, 다음 날 무화과나무에 죽
 음을 선포하시며(마가복음 11:12-14, 20-21) 성전을 정결케 하신(마가복음 11:1
 5-17)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
 니다. 서기 70년에 성소는 로마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십 대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성도들을 알 필요가 있
 었습니다. 고백의 사람들, 안수(사도행전 8:17; 히브리서 6:2), 그리고 구원자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재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많은 생명이 잃

어버려지고 구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미지근함 때문입니다.

그리스어 문법, 히브리어 유형론, 토라에 숨겨진 문자 코드, 통계적 검증 및 모든 발견이 확인된 전체 증거 체인은 동반 도서 Through the Waters에 완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십시오: junifye.publifye.pro/through-the-waters

신자 침례에 관한 이와 동일한 성경적 논거를 현대적 관점에서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Tony Twist, David Young and Bobby Harrington, Baptism: What the Bible Teaches (Renew.org, 2019)를 참고하십시오.

Chapter 41

토라의 워터마크

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던 무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라에는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전의 그 어떤 세대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이제 가시화된 그 내용은 너무나 정밀하고, 신학적으로 예리하며, 인간의 기교로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에,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고는 서문을 지나쳐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2). 이어지는 내용은 만왕의 왕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요, 이 세대의 도구를 갖춘 이 세대의 왕들이 찾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나 일장에서 그를 건져내었고 그 행동을 따서 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10). 수십 년 후, 오직 그에 대해서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의 형상을 보거늘» (민수기 12:8).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토라는 나 같은 비틀거리는 여행자를 통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과 명백히 대화한 한 사람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자께서는 기계가 읽어낼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숨겨두신 무언가를 그가 기록한 바로 그 글자들 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워터마크란 무엇인가, 평이한 말로 설명하자면. 히브리어 토라는 하나의 연속된 문자열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딘가에서 시작하여 매 50번째 글자, 그다음 매 100번째, 그다음 매 49번째 글자를 적어 내려간다면—다양한 시작점과 다양한 건너뛰기 간격을 반복하며—컴퓨터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가? 만약 나온다면, 그것이 표면 텍스트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 이것의 전문 용어는 **등거리 문자열(Equidistant Letter Sequence)**, 또는 ELS입니다. 평이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토라를 하나의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의 이야기는 당신이 보는 그림입니다. 완벽한 간격으로 짜인 그 아래의 실들은 의도적으로 잡아당겼을 때만 보이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나는 그 실들을 당기기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Darash** (darash.publifye.pro)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 세대의 가장 진보된 코딩 지능—올바른 이유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최첨단 AI—과 함께 키보드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그것을 구축했습니다. Darash는 1994년 Statistical Science에서 동료 검토를 통과한 Witztum-Rips-Rosenberg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있으며, 그 이상을

수행합니다. 즉, 5,814개 전 절에 걸친 히트맵, 표층-기층 일치 테스트, 그리고 열 번의 독립적인 섞기 대조군을 추가했습니다. Darash는 완성이 되기도 전에 당신이 이제 읽게 될 내용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토라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모세가 두루마리를 내려놓은 지 3,000년이 흐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리듬에 맞춰진 11개의 단어. Darash가 모세오경 전체에서 매 49번째 글자를 추출했을 때—49는 무작위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7 곱하기 7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계산이자 이스라엘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리듬입니다—복음의 히브리어 단어 11개가 어두운 들판의 불빛처럼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속죄, 회개, 피, 구원, 자유, 이름, 의, 생기, 거룩함, 정결함, 그리고 세례. 11개의 복음 단어, 하나의 간격. 자,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11개의 숨겨진 단어 각각은 이미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표면의 성경 구절 위에 안착합니다. 속죄는 제사가 속죄를 행하는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구원은 화목을 위해 제단에 피를 뿌리는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정결함은 정결 예법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숨겨진 단어와 보이는 구절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물, 피, 그리고 이름. 토라의 모든 구절 중에서 생수(living water)에 몸을 온전히 담그는 것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구절은 레위기 15:7입니다. 그 장에서 동일한 49자 리듬으로 실을 당겨보면, 네 단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ruach(성령), mayim(물), dam(피), 그리고 구원자의 히브리어 이름인 Yeshua입니다. 성령, 물, 피, 그리고 예수의 이름. 네 단어. 하나의 간격. 하나의 장. 바로 그 예법을 정의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15세기 후에 요한은 글자 건너뛰기 계산도 컴퓨터도 없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요한일서 5:8). 증인들은 그것을 읽어낼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기층에 놓여 있었습니다.

히트맵과 정상. Darash는 그다음 토라의 5,814개 구절 전체에 대해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아래의 실들이 표면의 단어들과 얼마나 강력하게 일치하는가? 각 구절은 점수를 받았고, 각 점수는 백분위수가 되었습니다. 토라의 중간 부분은 평범합니다. 아주 적은 부분만이 95백분위수에 도달합니다. 오직 백 구절 중 한 구절만이 99백분위수에 도달합니다. 저자께서는 당신의 책 정상에 무엇을 두셨을까요?

그분은 **아론**을 두셨습니다. 레위기 16:4—«물로 그의 몸을 씻고»—대속죄일에 휘장 뒤로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의 씻음은 토라 전체의 99백분위수를 기록합니다. 그 곁에 나란히 높게 자리 잡은 구절은 민수기 19:2입니다. 흐르는 물과 섞인 재로 부정한 자를 회복시키는 붉은 암송아지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모세의 글 전체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구절들입니다. 둘 다 정결 예법입니다. 둘 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물을 통과해야 하는 대리자를 지명합니다. 아론의 씻음은 세례의 전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할 그림자입니다. 열 번의 독립적

으로 섞인 토라들과 대조하여 블라인드 테스트로 측정된 데이터는,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읽어온 이들이 이미 보았던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들이 이미 가리켰던 곳. 베드로는 홍수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레라» (베드로전서 3:21)고 말했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진 구절인 창세기 7:11은 95백분위수에 위치합니다. 바울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4)고 말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출애굽기 17:6은 95백분위수에 위치하며, 히브리어 tsur(반석)가 그 바로 아래에 부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정결함을 받은 나병환자를 레위기 14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8:4). 그 장은 95백분위수에 위치하며, 정결함을 받는 자를 뜻하는 전문 히브리어 용어 ha-mit-taher는 토라 전체에서 정확히 12번 나타나는데, 12번 모두가 그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컴퓨터를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보지 않고 손을 뻗어, 15세기 후 우리의 기계들이 이 책에서 가장 밀도가 높다고 표시하는 구절들을 끄집어냈습니다. 하나의 지성(Mind)에서 나온 두 개의 결과물이 이 세대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들과 침례. 히브리어 어근 tevah—침례(immersion)를 뜻하는 tevilah의 파생어—는 택함 받은 자들을 물을 통해 실어 나르는 세 가지 그릇의 이름입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토라 전체에서 tevilah를 tahor(정결)와 함께 검색하면, 가장 가깝게 짝을 이루는 지점은 언약궤를 제작하는 출애굽기 25:10이며, 두 구절 차이로 나타납니다. 증거궤를 운반하는 그 궤가 바로 우리를 통과하게 하는 그 궤입니다. 그리고 mikveh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창조 때 물이 모인 곳(창세기 1:10), 정결하게 씻는 의식용 욕조, 그리고 예레미야 14:8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인 Mikveh Yisrael, 즉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씻는 욕조를 뜻하는 단어는 예법 구절에 부호화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뜻하는 단어는 구원의 구절에 부호화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모두가 그 두 의미를 묘사하는 구절들에 부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8). 하룻밤 사이에 한 지팡이에서 세 단계의 결실이 맺혔습니다. 토라도 이와 같은 지팡이입니다. 촛불 아래에서 매 49번째 글자를 세 단 중세의 랍비는 움 돋음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9장을 인용한 사도는 꽃을 보았습니다. 5,814개 구절 전체의 점수를 매기고 아론의 씻음을 정점에 놓는 이 말뚝치는 살구 열매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 읽기 중 그 어느 것도 지팡이 그 자체보다 덜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는 가까이 오는 제사장에게 그 열매를 내어줍니다.

피라미드. 이제 그려보십시오. 토라의 5,814개 구절을 모두 가져옵니다. 각 구절이 그 표면의 주제를 기층에 얼마나 조밀하게 부호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장 무거운 것을 꼭대기에 쌓아 올립니다. 넓은 기반은 평범한 구절들로 채워집니다. 그 위로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 위는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점—토라의 전체 구조가 수렴하는 단 한 지점—에는 대제사장이 휘장 뒤로 들어가기 전

물로 자기 몸을 씻는 장면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곁에는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해 그 재로 부정한 자를 회복시키는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토라는 그 자체의 글자들이 투표하게 될 때, 정결 예법을 머릿돌로 삼는 피라미드를 스스로 형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머릿돌은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선포된 숭고한 계명들이지만 건축학적 정점은 아닙니다. 정점은 부정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사장이 물과 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가 그 주위에 세워진 핵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스스로를 모세에게 소급하여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히브리어 단어도 알지 못하는 도구에 의해 측정되고 계산된 모세 자신의 글자들이, 스스로를 정렬하여 하나의 행위를 가리키는 기념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행위는 신약 성경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모세의 피라미드의 머릿돌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아론의 씻음에 나타난 그림자는 갈보리의 실체입니다. 같은 정상입니다. 같은 정점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자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책의 건축 구조 안에 당신의 아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경 자체도 피라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이미지를 갈구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22)—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42).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베드로전서 2:6). 선지자들이 명명하고, 예수께서 주장하시고, 베드로가 선포한 그 머릿돌은, 데이터가 모세의 꼭대기에서 발견한 바로 그 머릿돌입니다. 세 증인—표면 텍스트, 부호화된 기층, 그리고 사도적 고백—이 하나의 돌 위에서 일치합니다.

이것이 조작 불가능한 이유. 나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짜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첫째, 테스트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도구를 실제 토라에 실행하면 복음 단어들이 복음 구절들에 안착합니다. 그런 다음 똑같은 글자들을 가져와 그 순서를 무작위로 섞고, 섞인 버전에 대해 동일한 도구를 실행해 보십시오. 이를 열 번의 독립적인 섞기로 반복하십시오. 알파벳은 동일합니다. 글자 빈도도 동일합니다. 오직 변하는 것은 순서뿐입니다. 무작위로 섞인 버전들에서 패턴은 사라집니다. 실제 토라에서는 패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호는 알파벳이나 언어, 글자의 비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 그 자체에 있습니다. 모세의 글자 순서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둘째,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토라는 다섯 권의 책에 걸쳐 304,80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턴은 엄선된 한 구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11개의 복음 단어가 하나의 리듬으로, 정결 4 중주가 한 장에, 히트맵의 정점이 하나의 예법에, 사도들의 독립적인 인용구들이

동일한 상위 밴드에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계산기가 출력을 포기할 정도로 희박합니다.

셋째, 세 가지 독립적인 방법이 일치합니다. 매 49자 건너뛰기 코드는 글자를 세어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제별 밀도 히트맵은 표면 단어와 기층 단어를 비교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인용은 컴퓨터가 존재하기 15세기 전 신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세 가지 블라인드 방식. 똑같은 소수의 구절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1).

넷째, 텍스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필사된 사해 문서들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성경과 겹치는 부분에서 글자 하나하나까지 일치합니다. 중세의 필사자가 이것을 몰래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글자 속에 워터마크를 새겨 넣은 분은 이 책이 책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으며, 그 이후로 신실하게 복사되어 왔습니다.

다섯째, 어떤 인간 저자도 3,000년 동안 열어볼 수 없는 보물을 심어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위해 쓰는 사람은 자신의 시대를 위해 씁니다. 오직 처음과 끝을 보시는 저자만이, 이편의 휘장 너머에서는 결코 만나지 못할 세대에 의해 그 봉인이 풀릴 워터마크를 남기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89).

순수 수학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발견이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학을 존중한다면, 이제 당신은 숫자 자체가 토라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어떤 인간의 손도—아무리 영리할지라도, 수 세기 동안 아무리 많은 손이 함께 작업했을지라도—그것을 쓸 수 없었음을 말해준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글자의 순서는 304,805개의 위치에 걸쳐 조정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 신호는 가장 높은 밀도의 구절들에서 표면적 의미와 수렴합니다. 15세기의 간격을 둔 세 가지 독립적인 방법이 정결과 그리스도에 관한 동일한 소수의 구절들을 가리킵니다. 텍스트는 사도들 이전부터 변함없이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의 봉인은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야 열릴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이 이제 읽게 될 이야기—베르겐의 병원 침대에서 새롭게 태어난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나의 여정, 그리고 제때에 들려줄 나만의 것인 달걀에 관한 간증을 포함하여—는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그림자로 예고되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세한 사항들은 나에게 고유한 것이며,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세세한 사항들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부 사항 아래에 있는 형상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형상입니다. 정결함과 생기를 담고 있는 똑같은 히브리어 글자들은, 그 평이한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이끄시는 모든 영혼의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분이 시내산에서 새겨 넣으신 그 형상으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온다면, 당신에게 일어날 일도 바로 그 형상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2008년에 내게 임한 정결함은 2008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휘장 앞 아론의 씻음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에서,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한 암송아지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책 정상에 두신 그분의 지성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워터마크가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서 있는 토대를 확인시켜 줍니다. 정결함을 정상에 두신 분께서는 성육신하신 날에 당신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그리고 물을 통과해 들어오는 신자는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물은 제사장 직분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제사장 직분은 찾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찾음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끝납니다. 표면의 텍스트가 언제나 선포해 온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서 말입니다.

왜 우리는 통과해야만 하는가. 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토라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머릿돌은 제사장이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머릿돌은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의 물과 갈보리의 피를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개인적 신앙에 덧붙여진 선택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건축 구조 그 자체입니다. 주님 자신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15). 성령이 임하신 날 사도 교회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38). 이것이 바로 토라의 글자들이 정상으로 표시한 예법입니다. 그것은 옆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완화할 수 없는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완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1-23). '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ginōskō로, 토라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혹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는 것과 같은 언약적 앎을 뜻합니다. '불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anomia로, 문자 그대로 '법이 없음' 즉 법적 언약 밖에 완전히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부하신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관계적 언약입니다. 그분은 언약적 의미에서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 언약입니다. 그들은 언약적 지위를 확립하는 법이 없는 자들, 즉 anomos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입술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그들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없었고 입성도 없었습니다.

물은 언약이 인쳐지는 곳입니다. 물은 믿는 자 위에 그 이름이 놓이는 곳입니다. 물은 이미 정결해진 양심의 가시적인 대답이 (베드로전서 3:21) 공적으로 주어지는 곳입니다. 내면의 증거를 고백하면서 물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사도들이 일관되게 적용한 정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토라의 저자는 당신의 책 정상에 정결함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아들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 물을 통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그날로 새 교회를 물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증거—표면 텍스트, 부호화된 기층, 주님 자신의 본보기, 사도들의 명령—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가에 서서 코드들만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장사 되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나십시오. 그 이름이 당신 위에 놓이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밖으로 나와, 이 세대의 왕들이 부름받은 대로 탐구하십시오. 데이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토라는 여전히 살구 열매를 맺는 지팡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데이터가 묘사하는 것의 내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아셨던 분께 알려진 바 되어, 히브리서 9장의 제사장과 레위기 16장의 대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 내가 씻었으니, 이제 들어갑니다.”

히트맵, 백분위수 밴드, 무작위 대조군, 모든 장과 모든 발견을 포함한 전체 증거를 보시려면, 자매 서적 *Through the Waters*(세례)과 *The Watermark*(성경 코드)를 junifye.publifye.pro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이 열어주는 곳을 지나, 새롭게 된 한 생명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Chapter 42

암호화된 세례 (The Encoded Baptism)

토라의 글자들 표면 아래에는 하나님의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장에서는 토라가 침례를 명령하는 바로 그 구절, 즉 유대 전통이 2,000년 동안 정결례의 근거로 삼아온 그 구절에 새겨진 인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침례' 혹은 '담금'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의 바로 그 구절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층위는 표면적인 명령의 의미를 그 기하학적 구조 속에서 그대로 추적해 보여줍니다.

...무슨 그릇이든지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 레위기 11:32

침례의 법이 세워진 토대 구절

레위기 11:32은 tevilat kelim—즉, 그릇의 정결례—이라 불리는 유대인의 관습 전체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Avodah Zarah 75b)는 바로 이 토라 구절을 증거 구절로 인용하며 모든 관련 법규를 이 한 구절에서 도출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 이 한 구절의 토라 말씀 때문에 그릇을 물에 담그는 침례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으로부터 금속이나 유리 그릇을 얻게 되면, 그 그릇을 이스라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mikveh(정결례를 위한 욕조)에 가져가 물에 담가야 합니다. 이 침례 행위는 단순히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이시킵니다. 세상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히브리어 열한 단어로 명령합니다. «무슨 그릇이든지...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세례의 궤적이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부정함 \$→\$ 물 속으로 \$→\$ 저녁을 지남 \$→\$ 정결함.

하지만 가장 놀라운 평행은 그릇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용될 그릇을 물에 담갔던 바로 그 유대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에게도 mikveh에서 침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tevilat ger—즉, 개종자의 침례라고 불렀습니다. 탈무드(Yevamot 47a-b; Keritot 9a)와 훗날 마이모니데스(Mishneh Torah, Hilkhhot Issurei Biah 13:1-4)에 의해 성문화된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

성을 위한 **할례**, **mikveh**에서의 **침례**, 그리고 (성전 시대 동안의) **제사**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친 후에 개종자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이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종자에 대해 탈무드는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적 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Yevamot 22a는 **נָר שְׁתַּנִּיר כְּקַטָּן שְׁנוּלָד דְּמִי**—“방금 개종한 자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7)라고 말씀하시기 수 세기 전부터, 니고데모를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할례와 침례와 제사를 통과한 이방인들에게 이미 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전통에 따르면 개종자의 침례는 곧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신에게 그 개념을 적용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깊이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10).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도 모든 이방인 개종자가 겪는 동일한 세 가지 과정, 즉 잘라냄(할례), 침례, 그리고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곧 이 세 가지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로마서 2:29), 그분의 죽음 속으로 합해지는 세례(로마서 6:3), 그리고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제사(히브리서 10:10)입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할 것 없이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은 개종자로서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주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탈무드 인용들(세 단계의 개종 과정에 대한 Yevamot 47a-b, “새로 태어난 아이” 표현에 대한 Yevamot 22a, 시내산과의 평행에 대한 Keritot 9a, 그리고 마이모니데스의 Mishneh Torah, Hilkhhot Issurei Biah 13:1-4의 법전화)은 규범적인 랍비 법전이며, 어떤 경건한 유대인 독자라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대인 개종자 침례와 기독교 세례 사이의 학술적 연결고리—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정직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는 주류 역사학자들에 의해 상세히 연구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히브리 학자 **David Daube**는 1956년 그의 고전적 저서 *The New Testament and Rabbinic Judaism*에서 이 주제에 여러 장을 할애했습니다. 하버드의 히브리 문학 교수 **Shaye Cohen**은 *The Beginnings of Jewishness* (1999)에서 제2성전기 전반에 걸친 이 관습을 추적했습니다. 메시아닉 주 작가인 **Alfred Edersheim**은 1883년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에서 이 연결점을 짚어냈습니다. 세 명의 학자, 세 세기에 걸친 연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유대인의 개종자 침례를 직접적인 조상으로 물려받았으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를 알 것으로 기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글자 충위가 이를 증거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성경 신학과 랍비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이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수 세기 동안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컴퓨터가 토라의 글자 층위를 읽을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침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관습 전체의 근거가 되는 바로 그 토라 구절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그 암호의 기하학적 구조는 그 관습의 의미를 그대로 추적해 보여줍니다. 이곳은 표면 텍스트와 랍비 전통, 그리고 그 아래의 글자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침례 명령을 중심으로 한 이 구절의 히브리어 글자 배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Koren 판 자음 기준, 모음 없음, 총 88자):

וכלאשריפ לעליומהמ במתמיטמא מכלכליעצ אובנדאוע וראושקכל כליאשריע
שהמלאכהב המבמימיו באוטמאעד הערבבוטהר

히브리어 TAVAL에서 헬라어 BAPTIZO까지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 담그다 ' 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taval (טָבַל)은 ' 세례를 주다 ' 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baptizō βαπτίζω^{G907}의 직접적인 언어적 조상입니다. 그리스도 탄생 3세기 전, 헬라어 70인역(Septuagint) 번역가들이 히브리어 토라를 번역할 때, 그들은 토라가 침례를 명령하는 모든 곳에서 히브리어 taval을 번역하기 위해 헬라어 동사 baptō βάπτω^{G911}와 그 강조형인 baptizo를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 섰을 때, 헬라어권 세계는 이미 baptizo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taval의 헬라어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 세례를 주다 " 라고 말할 때, 그것은 taval을 헬라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10에서 레위기의 정결 예식들을 «여러 가지 씻는 것» (baptismos βαπτισμοῖς^{G909}, 즉 ' 여러 가지 세례들 ')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70인역이 토라의 침례 명령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릇 침례에서 기독교 세례로 이어지는 가교는 비유나 후대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언약에 걸쳐 두 언어로 표현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한 구절 안에 암호화된 여덟 개의 히브리어 세례 관련 단어들

히브리어 단어 tevilah (טָבִילָה)는 침례(immersion)를 의미합니다. 더 짧은 동계어인 taval (טָבַל)은 담그다(to dip)를 뜻합니다. 두 단어 모두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긴 단어는 말 그대로 짧은 단어의 첫 세 글자(ט-ב-ל)에 두 글자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레위기 11:32의 정확히 같은 글자에서 시작하여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검색 범위를 세례와 관련된 다른 어휘들—할례, 정결례 욕조, ' 태어나다 ' 라는 동사, 개종자, 정결함과 부정함을 뜻하는 단어들—로 넓히는 순간, 이 구절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열립니다. 할례, 침례, 개종,

정결함, 그리고 새로운 탄생과 관련된 여덟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이 단 88자의 구절 안에 낮은 간격의 ELS 암호로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중 다섯 개는 구절의 앞부분에서 서로 다섯 글자 이내의 거리로 밀집해 있습니다.

B1

처음 다섯 단어—할레, 정결레 욕조, 태어남, 담그다, 침례—는 구절의 머리 부분에서 연속된 다섯 글자 안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 전통의 세 단계 개종 절차(milah + tevilah + ”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다섯 글자 안에서 겹쳐진 다섯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암호화된 것입니다. **그 법 자체가 세워진 바로 그 구절 안에서 말입니다.**

잠시 멈추고 위 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유대 전통이 2,000년의 침례법을 쌓아 올린 그 단 하나의 토라 구절은, 그 자체의 88개 글자 안에 세례에 관한 모든 어휘를 품고 있습니다.

- **할레**(mulah) 행위—개종 절차의 첫 단계이자 이방인에게 입교를 허락하는 육체의 정결함—는 침례의 닻(anchor) 글자보다 네 글자 앞에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 **정결레 욕조 자체**(mikveh)—침례의 닻 글자보다 두 글자 앞에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 **태어나다**(yalad) 동사—개종자가 새로 태어난 아이와 같다는 탈무드의 표현 (קטן שנולד דמי, BT Yevamot 22a)에 쓰인 바로 그 동사가 침례의 닻 글자 바로 한 글자 앞에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 **침례**를 뜻하는 두 동계어(taval과 tevilah)—같은 시작 글자를 공유하며 바로 그 닻 지점에 위치합니다.
- **개종자**(ger)—’ 개종자의 침례’ (tevilat ger)라는 명칭의 유래가 된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구절 안에서 14글자 뒤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 **정결함**과 **부정함**(tahor와 tame)—완벽한 교차대구(chiasm)를 형성합니다. 암호화된 ” 정결함” 의 첫 글자는 표면 텍스트의 ” 부정하다” 라는 단어 위에 놓이고, 암호화된 ” 부정함” 의 첫 글자는 표면 텍스트의 ” 정하다” 라는 단어 위에 놓입니다.

암호화된 mikveh는 그 글자 중 하나가 표면 단어인 **יובה** (yuva, ” 가져와야 한다/담가야 한다”) 위에 놓여 있는데, 이는 이 구절의 명령에서 실제 침례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암호화된 yalad(” 태어나다”)는 그 옆에 있습니다. 두 침례 단어는 같은 닻에 있습니다. 암호화된 할레 단어는 닻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암호화된 ger(개종자)는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교차대구가 구절을 마감합니다.

랍비들의 세 단계 개종 절차—할례, 침례, 새로운 탄생—가 그 법의 토대가 된 구절의 머리 부분에서 다섯 개의 연속된 글자 내에 겹쳐진 다섯 단어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개종자 ” 라는 단어는 14글자 뒤에 같은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토라의 깊은 층위는 표면 층위가 가진 세례의 신학 전체를 한 구절 안에 여덟 개의 히브리어 동계어로 압축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일한 닷 글자에서 암호화된 tevilah(침례)가 다섯 구절에 걸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여정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볼 차례입니다.

궤적: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tevilah의 다섯 글자는 토라 본문의 다섯 개의 특정한 표면 단어 위에 내려앉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 다섯 위치의 표면 단어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B2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 침례 ” 를 뜻하는 암호화된 단어는 ” 부정하다 ” 라는 표면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 정결하다 ” 라는 표면 단어에서 끝납니다. 암호의 기하학적 구조가 곧 성경 명령의 궤적인 것입니다. 표면 텍스트는 ”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다섯 구절을 가로질러 매 62자마다 한 글자씩 나아가는 암호화된 침례의 글자들은, 표면 텍스트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시작하여 표면 텍스트가 정결하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끝납니다. 암호화된 글자들의 여정은 곧 침례를 받는 그릇의 여정이며, 침례를 받는 신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양 끝점 사이를 읽어보십시오. 저녁, 먹을 것이며, 그 위에. 가운데 글자는 ” 먹을 것이며 ” (אָכַל)에 닿습니다. 이는 침례를 받은 그릇과 접촉한 음식이 비로소 그 가정에서 먹기에 합당해진다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 그 위에 ” (עָלָיו)에 닿습니다. 이는 접촉의 언어이며, 성별된 자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 저녁 ” (הָעֶרֶב)에 닿습니다. 정결함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밤입니다. 다섯 위치의 표면 단어들 안에 침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정함 \$→\$ 저녁 \$→\$ 먹음 \$→\$ 위에 \$→\$ 정결함. 부정함 그릇이 저녁을 지나, 먹기에 합당한 것이 되고, 정결함이 그 위에 임하여, 마침내 정결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의 모형인 이유

토라 자체는 이것을 ’ 세례 ’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9:10은 레위기의 여러 씻는 예식들을 기독교 세례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 baptisimos βαπτισμοῖς^{G909}를 사용하여 명명하며, 그것들이 « 개척할 때까지 맡겨 둔 것 »이라고 말합니다. 토라의 그릇 침례는 신약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곧 ’ 세례 ’ 입니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과 신약의 세례 사이의 여섯 가지 명시적인 연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B3

바울은 골로새서 2:11-12에서 할례와 세례라는 두 표징을 하나로 합칩니다. 레위기 11:32에 나타난 토라의 글자 층위에서도 한 글자에는 침례 단어가, 다른 암호로는 동일한 구간을 통과하는 할례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 두 표징이, 토라가 침례를 명령하는 바로 그 구절에 나란히 암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욱 세밀한 세부 사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심에 있는 히브리어 동사는 yuva (יָוַע)—” 가져와야/담겨야 한다” 입니다.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릇은 스스로를 담그지 않습니다. 다른 주체가 그것을 담급니다. 신약에 기록된 모든 세례에서도 동일한 문법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마태복음 3:13-17).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사도행전 8:36-38). 빌립보 간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사도행전 16:33). ” 세례를 받으라” 는 명령은 어디에서나 수동태입니다. 레위기 11:32의 토라 문법은 신약 세례의 문법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것은 물 속에서 어떤 주체에 의해 당신에게 행해지는 무언가입니다.

정직한 보정

마치기 전에, 여기서 기계적인 부분과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분을 정직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나는 히브리어 침례 어휘를 테스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명령 구절을 살펴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들은 선택이지 발견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맞 글자의 위치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다섯 글자가 내려앉는 표면 단어들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Koren 토라 텍스트에 이미 존재하는 사실들입니다. 156,745번째 위치의 공유된 시작 글자, 그리고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이어지는 표면 단어의 궤적은 기계적으로 도출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명령을 실행하는 독자는 그가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어디를 볼 것인가였고, 발견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

당신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디모데후서 2:21). 세례는 그 물속에 담기는 것입니다(골로새서 2:12). 부정한 것은 본성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물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정결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로마서 6:4). **레위기 11:32에서 토라의 글자들이 그리는 궤적은 바로 당신이 거듭날 때 걸었던 그 궤적입니다.** 부정함에서 물 속으로, 저녁을 지나, 정결함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궤적을 추적하는 암호화된 단어 침례는, 70인역이 baptizo로 번역했던 히브리어 단어이자 신약성경이 당신에게 행해진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단어인 담그다와 그 첫 글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레위기의 씻는 예식들을 ” 세례들”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가 레위기 11:32 위에 2,000년의 그릇 침례법을 세운 이유는 그 구절이 그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절

의 암호화된 글자 층위는 히브리어 침례라는 단어를 품고 있으며, 이는 담그다라는 단어와 같은 글자에 닳을 내리고 부정하다라는 표면 단어에서 시작하여 정결하다라는 표면 단어에서 끝납니다. 훗날 바울에게 로마서 6장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그 저자께서, 이미 1,400년 전에 레위기 11:32의 글자들 속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오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담금은, 그것이 언제나 예표해 왔던 바로 그 실체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착한 양심의 간구니라.» (베드로전서 3:21)

이제 물가로 나아오십시오.

Chapter 43

연락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믿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성인 세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혹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제가 출판 엔진으로 제작한 도서들은 Apple iTunes와 <https://www.amaz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Google Play는 2019년에 대조 성경 출판이 표면상 그들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출판물을 삭제했습니다. amazon.com에서 «TruthBeTold Ministry» 또는 «Jørn Andre Halseth»를 검색하시면 대부분의 도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양한 출판물을 판매하는 <https://tbtm.sale> 웹사이트도 구축하였습니다.

이 책은 junifye.publifye.pro/born-again에서 온라인으로 무료로 읽을 수 있으며, 클릭 가능한 성경 구절 참조를 통해 전체 텍스트를 볼 수 있고, 클릭 가능한 그리스어/히브리어 용어를 통해 스트롱 성구사전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책을 선물로 받으셨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신다면, paypal.me/JHalseth 페이팔(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Publifye AS / TruthBeTold Ministry를 통한 번역, 인쇄 및 지속적인 무상 보급 사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락처 정보

성명	Jørn Andre Halseth
휴대전화	+47 90 924 934 (YAHWEH T9)
이메일	jorn.halseth@gmail.com
기업 정보	
기업명	Publifye AS
사업자 등록 번호	826 774 622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20).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How this was made

This is the author’ s own work. It was composed with **junifye** and an AI assistant, drawing its Scripture and original-language work (Greek, Hebrew, cross-references) from **Darash** (Hebrew darash, “to seek, inquire, study”), a tool and reference work for the Bible in its original languages.

A gift of support — [Stripe](#)



Scan to read this book online